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松江歌辭의 산수문학적 성격과
교훈성 지도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朴 昭 容

2017年 8月

松江歌辭의 산수문학적 성격과 교훈성 지도

指導教授 孫 五 圭

朴 昭 容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7年 6月

朴昭容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7年 8月

Teaching Songgang Gasa's Sansu-literary
characteristicss and Didactic value

Pak, So-yong
(Supervised by professor Sohn, O-Gyu)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7.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Sohn, O-Gyu, Prof.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
.....
.....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松江歌辭의 산수문학적 성격과 교훈성 지도

朴 昭 容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孫 五 圭

松江 鄭澈의 가사는 문학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금까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꾸준히 교육 자료로 활용된 古典이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 교수·학습자의 심미적 체험을 통한 문학교육을 위해 松江歌辭의 산수문학적 성격과 교훈성을 고찰하고, 이를 지도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松江歌辭는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교육적 활용에 있어서 현재적 가치가 뛰어나다. 문학 작품으로서 松江歌辭의 우수성을 파악하고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품에 반영된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松江歌辭는 山水隱居를 지향하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일반적인 山水觀을 공유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강한 현실 감각으로 인하여 독특한 산수문학적 성격이 나타난다. 「星山別曲」은 山水가 思惟의 공간으로서 이념과 현실 간의 갈등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關東別曲」에는 山水를 遊覽하며 유학자로서, 목민관으로서 느끼는 이중적인 감정 속에서의 風流가 녹아 있다. 松江歌辭는 당대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따르면서도 山水가 현실의 연장이라는 면에서 松江만의 山水觀을 보여준다.

松江은 「思美人曲」과 「續美人曲」은 공간과 시간의 이원적 순환 구성을 통해 戀君之情과 변치 않으리라는 의지를 보이고, 극 양식의 구조로 작품을 전개함으로써 내적 갈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갈등이 전개되면서도 결과적으로 一片丹心을 노래하여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한 교훈을 제시한다. 극단적인 상황

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어 준다. 이처럼 松江歌辭의 산수문학적 성격과 교훈성은 타자에 대한 이해와 자신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히는 간접 경험을 제공한다.

松江歌辭는 학습자가 시대적 가치의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는 심미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이 연구에서는 松江歌辭의 문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 방향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전시가 교육에서 가치 탐구 학습을 적용하여, 단계별로 활용이 가능한 학습 활동을 구성하였다. 이를 실제 교수·학습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關東別曲」을 예로 들어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위의 지도 방향을 바탕으로 松江歌辭를 지도한다면, 문학적 특질을 학습하는 동시에 학습자가 자기 이해의 문학적 경험을 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높이고 더욱 심도 있는 지도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가치관이 확립되는 청소년 시기의 학습자들이 다양한 가치를 접하고 사고력을 키워서 자신만의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II. 국어교육에서 位相과 현재	
1. 古典으로서 가치와 독창성	8
2. 교육 제재로서의 現在性	16
III. 松江歌辭의 산수문학적 성격	
1. 思惟 공간으로서의 山水	23
2. 山水遊覽의 風流性	30
3. 山水 인식과 자연합일	38
IV. 松江歌辭의 교훈적 특성	
1. 戀君之情과 윤리성	43
2. 극적 구성의 구조적 설득	50
3. 심미적 체험과 교훈적 가치	55
V. 산수문학적 성격과 교훈성의 교육적 적용	
1. 다양한 가치의 이해를 위한 교수·학습 방안	59
2. 교수·학습 과정안과 실제	71
VI. 결론	85
<참고문헌>	88
<Abstract>	92

표 목 차

[표 II-1]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내 松江歌辭 수록 목록	17
[표 III-1] 「星山別曲」의 구성	24
[표 III-2] 「關東別曲」의 구성	31
[표 IV-1] 「思美人曲」의 구성	45
[표 IV-2] 「續美人曲」의 구성	52
[표 V-1] 가치 탐구 학습 모형	61
[표 V-2] 고전소설 교육에서의 가치 탐구 학습 모형	62
[표 V-3] 가사문학 교육에서의 가치 탐구 학습 모형의 주요 활동	63
[표 V-4]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의 예	65
[표 V-5] ‘가치 발견하기’ 학습 활동	66
[표 V-6]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가치 재평가하기’ 학습 활동	67
[표 V-7] ‘가치 조직하기’ 학습 활동	69
[표 V-8] ‘가치 확장하기’ 학습 활동	70

I. 서론

古典文學은 국어교육 영역 중 문학교육의 한 부분이다. 특히 고전시가는 우리나라 문학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문학 갈래로 古典文學 교육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古典文學은 문학 작품이 아니라 암기해야 할 지식으로 여겨져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고전시가 작품은 그저 난삽하기만 한 옛 문헌자료 정도로 취급되고, 학생들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옛글 하나를 하는 수 없이 배운다는 부담 정도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고전은 위대한 작가의 작품으로 뛰어나다고 이야기해도 학생들에게 그러한 설명들은 무의미한 동어반복이며, 실제로는 낯설고, 어렵고, 쓸모없고, 그러면서 그저 골치만 아프게 하는 대상으로 인식될 따름이다.¹⁾ 이는 古典文學 교수·학습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학습자와 격리됨으로서 더욱 더 우리 古典文學과 독자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어교육에서 古典文學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古典文學은 오랜 세월 이어온 한국인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우리는 고전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이전의 국어 문화를 통해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고,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국어 문화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어교육에서 古典文學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古典文學을 문학 작품으로써 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야 한다.

古典文學이 문학으로서 오롯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때, 우리의 문화적 바탕이 된 전통의 진정한 계승을 이루어낼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역사의 현재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역사의 현재성이란 사실의 연구와 분석 등을 통해 해석이 나오면 그 해석에 대한 결과적 평가는 시대의 발전에 따라, 또는 그때마다의 현재적 요구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늘 새롭게 선택되고 해석된다.’고

1) 김대행, 「송강가사와 문학교육」, 『송강문학 연구 현황과 전망』, 고요아침, 2014, pp.566-567 참조.

이야기한다. 문학도 이와 동일하게 어떤 작품이라도 감상되는 시점과 독자에 따라 늘 새로워진다. 이런 현재성을 파악하는 것이 오늘날 古典文學 교육에서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 당시에 많은 대중들에게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松江 鄭澈(1536 - 1593)의 가사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古典文學의 현재성을 증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로써 古典文學의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고자 한다.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공감은 ‘동질성의 확인’과 ‘새로움의 발견’²⁾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古典文學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우리 조상들과의 동일성과 새로움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우리 고유의 문화를 이해하게 된다. 松江歌辭는 당대 가치관인 유교적 이념과 예술가로서의 風流를 뛰어난 우리말 표현으로 융화한 문학교육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제1-7차 국정 교과서부터 2007 개정, 2009 개정 교육과정³⁾ 국어 교과서에 대표작 「關東別曲」, 「思美人曲」, 「續美人曲」이 수록되었으며, 2013년도 수학능력시험에 「星山別曲」이 출제되는 등 꾸준히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현재 고등학교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松江歌辭가 수록된 교과서는 <국어 I>, <국어 II>, <문학>, <고전>이다. 10종의 교과서에서 ‘한국 문학’을 이해하는 단원에 수록되어 있으며, 3종에서는 ‘문학’을 주제로 한 단원에서 소개하고 있다. 한국 문학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松江歌辭가 대표적인 작품으로 인식된다고 하겠다. 국문 가사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松江歌辭는 앞으로도 우리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고전이자 교육재로 활용되리라 본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의 교수·학습자를 위한 교육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松江歌辭에 대한 연구는 그가 활동하던 당대부터 조선 후기를 거쳐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대체적인 연구 성과는 가사문학의 주 창작자였던 사대부의 사상과 자연관, 미학 등을 바탕으로 한 가사문학의 흐름 안에서 松江歌辭만의 특질을 밝히는 것이었다.⁴⁾ 松江歌辭의 문학성에 대한 연구는 이처럼 언어

2) 김대행, 앞의 책, 2014, pp.577-578.

3) 2009 개정 교육과정(제2009-41호, 2009년 12월 23일 고시) 총론과 국어과 선택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2011년(제2011-361호, 2011년 8월 9일 고시), 2012년(제2012-14호, 2012년 7월 9일 고시) 순으로 수정 고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통칭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2009 개정 교육과정(제2012-14호)을 말한다.

4) 松江歌辭만을 중심으로 논의한 연구는 박사논문 5편, 석사논문 90여 편, 일반논문 150여 편에

학, 비교문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그동안 정전으로서의 松江歌辭에 대한 연구⁵⁾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에서 松江歌辭를 여러 방면에서 분석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⁶⁾

류수열(2006)은 총 7차에 걸쳐 개정된 국정 국어 교과서들에서 松江歌辭가 다루어진 양상을 통시적으로 분석하여 그 경향과 특징을 제시하였다. 그는 「關東別曲」의 수용사에 주목하여 국어교육의 목표를 기준으로 한 모델 중에서 문화의 계승을 추구하는 ‘문화 모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작품이라 평가하였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변천에 따른 정전으로서의 「關東別曲」이 학습자에게 어떻게 제시되었는가를 통해 교육적 가치를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국어교육에서 松江歌辭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었다. 반면에 松江歌辭 중 「關東別曲」만을 대상으로 교재사적 관점에서만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진희(2015)⁷⁾는 松江歌辭와 관련한 국정 교과서의 동향을 정리하고, 현재 16종의 검인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동향을 아울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松江歌辭의 심미적 가치에 대해 강조하며 앞으로의 더 깊은 연구가 진행되리라 전망하였다. 松江歌辭 교육과 연구 동향 및 문제점을 파악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 중심적 교육과 연구의 체계와 구체적 방법, 松江歌辭의 연구 성과를 적용하는 방법 등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외에도 한창훈(2005), 조희정(2005) 등 松江歌辭의 교육적 연구를 통해 松江歌辭의 가치를 탐색하였으나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대한 제시는 미흡하다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석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을 松江歌辭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졌다. 교육 현장에서 松江歌辭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학습자와 텍스트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

이른다.(박영주 외, 『송강문학 연구 현황과 전망』, 고요아침, 2014 연구논저 총목록 참조.)

5) 김진희, 「송강가사의 수용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구선우, 「송강가사의 전승과 향유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6) 김대행, 앞의 책, 2014.

류수열, 「『관동별곡』의 교재사적 맥락 - 고전시가의 교재론적 구도」, 『고전시가 교육의 구도』, 역락, 2008.

김진희, 「송강가사 교육과 연구의 동향 및 전망」, 『국어교육연구』 제59집, 국어교육학회, 2015.

윤성원, 「송강가사의 정전화 양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7) 김은희, 「가사문학의 창의적 가치」, 『한국시가문화연구』 제37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6, p.449 참조.

다.8) 그러나 대부분 어려운 텍스트를 쉽게 감상하는 다양한 방안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사실이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문학을 향유하는 학습자와 교수자의 목표가 다양해지고, 이를 위한 수용 방법과 학습·교수법도 다변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松江歌辭를 교수·학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체를 활용하거나 다른 시가와 비교 학습하고,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통해 심미적 감상을 활발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감상의 활성화만 중점을 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松江歌辭만의 독특한 특질을 통해 문학적 효용을 얻을 수 있다는 古典文學의 교육 목표와 연결성이 부족한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松江歌辭의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현대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9)가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았다.

박영주(2015)는 松江歌辭의 교육적 적용에서 제기되는 가치의 문제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부각하는 ‘감성 교육’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가치가 있음을 고찰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텍스트 자체가 지닌 감성 교육적 가치, 학습자가 텍스트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감성 교육적 가치라는 두 갈래의 관점에서 松江歌辭의 교육적 의의를 탐색하였다. 그의 논의는 교육적 구도나 교육 방향에 대한 교수·학습적 부분에서 밀도 있는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그동안의 문제의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 방향의 관점에서 松江歌辭를 이해하고 수용하고자 한 점은 긍정적이라 하겠다.

선행연구들은 역사주의적 관점과 문헌학·실증주의적 방법을 통해 松江歌辭만의 특질을 밝혀 고전으로서 松江歌辭의 문학적 가치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松江歌辭의 수용사와 문학교육적 적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획득한 시대와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최근 연구는 오늘날 松江歌辭를 수용하는 학습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최근의 연구 경향은 학문적 탐구와 교육적 활용 방안을 순환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심화하여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

8) 松江歌辭를 주제로 한 90편의 석사 논문 중 37편이 교육적 적용에 대한 논문으로 2000년대부터 꾸준히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고찰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박영주 외, 앞의 책, 2014 연구논저 총목록 참조.)

9) 김은희, 앞의 논문, 2016.

박영주, 「송강가사의 감성 교육적 가치」, 『한국시가문화연구』 제37집, 2016.

도록 하는 바람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문학의 보편적 가치를 松江歌辭에 적용한 현대적 연구는 아직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머물고 있다.

이 연구는 국어교육에서 松江歌辭의 위치를 조명하고, 오늘날 문학으로서의 효용과 그 뛰어난 가치를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국어과에서는 국어과 교육의 성격을 크게 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소통 교과, 사고 교과, 가치관 교과로서의 성격이 그것이다.¹⁰⁾ 이 중에서 문학교육은 소통과 사고에도 영향을 주지만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국어과는 “언어가 담아내는 심미적·문화적·윤리적·사회적·정치적 가치를 다각도로 경험하고, 인간 세계의 보편적이고 시의적인 가치 갈등 양상에 대한 인식과 판단력을 기르는 교과이다.”¹¹⁾ 한 사회 구성원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문학 작품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간접 경험을 제공한다.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인재상을 추구하고 있다. 松江歌辭는 이러한 점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과정에 있는 고등학교 학습자에게 다양한 가치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고전이다.

松江歌辭에는 당대 가치관과 일치하는 요소와 가치 갈등을 일으키는 내적 요소, 그리고 오늘날에도 내재화할 수 있는 가치 등 다양한 갈등 속에서 여러 가치가 공존한다. 이를 현대적 관점에서 학습자 스스로 분석하는 가치 탐구 교육 이론을 활용하여 지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 교수·학습자의 깊이 있는 문학교육을 위해 松江歌辭의 산수문학¹²⁾적 성격과 교훈성¹³⁾을 고찰하고, 이를 지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어과 교육과정 상에서 古典文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2009 개정 국어 교과서에는 15세기 중세국어로 표기된 원문 텍스트를 그대

10) 최미숙 외,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2016, pp.24-25.

11) 최미숙 외, 앞의 책, 2016, p.25.

12) 孫五圭는 산수문학이란 자연을 소재로 삼아 山水愛好 정신에 입각해 山水美를 형상화한 시가와 문학 작품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孫五圭, 『山水文學研究』, 제주대학교출판부, 2000, pp.17-49 참조.)

13) 이념적·관념적 가치관을 직접적으로 혹은 우의적으로 표방하는 진술과 관련한 문학용어로 “didactic”을 여기에서는 조동일의 용어를 활용하여 ‘교술성’으로 표현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를 번역한 ‘교훈성’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교훈성’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조동일, 『가사의 장르규정』, 『어문학』 제22집, 한국어문학회, 1969 참조.)

로 수록하고 있다. 중세문법에 대한 기본 학습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 교육 현장을 고려하여 대상을 고등학교 교수·학습자로 한정한다. 가집 『松江歌辭』¹⁴⁾에 실린 작품 중 현재 고등학교에서 교수·학습하는 「星山別曲」, 「關東別曲」, 「思美人曲」, 「續美人曲」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우선 문학교육에서 松江歌辭의 위상과 국어과 교재로서 현재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松江歌辭의 산수문학적 성격을 중심으로 하여 당시 가치관이 문학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고, 이것이 어떤 문학적 성취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松江이 가사 작품에서 山水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가치관을 담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松江 시가의 山水에서 감득되어 발견한 山水美를 예술로 발현하는 산수문학적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松江歌辭를 공식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더 확대해 통시적인 문학성을 밝혀볼 것이다.

또한 작품 분석을 통해 당시의 가치관과 문학관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훈은 우리 삶의 체험 속에서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음이나 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은 인간의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인식과 美, 윤리 등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학 작품은 작품의 의도 안팎에서 교훈을 주는 교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松江歌辭의 문학적 고찰을 통해 교육적 시각에서 松江歌辭의 문학적 독창성과 교훈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松江歌辭가 당대 가치관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또 현재의 가치관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학습자들이 문학 작품으로서 가치 확립에 효용을 증명하고자 한다.

문학 작품에 담긴 다양한 가치를 비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타당한 근거 없이 마음대로 판단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속성이 파괴된 현대사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계승된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아직 가치관이 미완성된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14) 사전적 정의로서 ‘松江歌辭’는 松江의 시조와 가사 작품이 수록된 시가집 『松江歌辭』를 일컫는다. 이 논문에서는 『松江歌辭』 상편에 수록된 가사 4편을 ‘松江歌辭’로 통칭하였다.

다. 그래서 교수자는 이것에 유의하여 학습자에게 알맞은 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수·학습하여 학습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입식으로 강요된 가치관은 내면화되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학습자는 자신의 삶의 의미가 어떤 궁극적인 목적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접하고, 스스로의 논리에 맞는 가치를 선택하게 된다. 교육자는 길잡이로서 다양한 가치 중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선별할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松江歌辭의 대표작인 「關東別曲」을 예로 들어 松江歌辭의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에 맞는 인성 함양을 도모를 목표로 고전시가 교육에서 가치 탐구 학습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교수·학습 과정안과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한다면 松江歌辭의 새로운 가치를 학습자들이 스스로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II. 국어교육에서의 位相과 현재

1. 古典으로서 가치와 독창성

松江 鄭澈의 대표적인 가사 작품인 「星山別曲」, 「關東別曲」, 「思美人曲」, 「續美人曲」은 우리 문학사 중 시가문학 부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松江의 가사는 생존 당대부터 조선조 동안 구술 전승과 함께 한역까지 폭넓게 향유되며 그 문학적 우수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아 왔다.

古典文學 갈래 중 ‘가사’는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향유된 문학양식 중 하나이다. 4음보 연속체인 율문이지만 내용 면에서 서정, 서사, 교술의 다양한 성격이 융합되어 나타난다.

조동일은 “가사는 자아를 세계화하는 교술시이며, 듣는 이에게 일러주는 말이다. 가사의 원천은 교술민요이다. 누가 창작한 교술민요를 민요로 되돌리지 않고 별도로 전승한 것이 초창기의 가사”¹⁵⁾라고 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사대부 계층이 창작했지만, 가사 특유의 장르적 개방성으로 모든 계층이 창작하고 향유한 문학이라 할 수 있다. 가사문학은 우리 고유의 노래 형식과 조선시대 사대부의 이념적 문학이 만나 발생되었고, 작품에 내재된 유교적 가치를 일반 대중이 내면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가사는 아름답고 재미있는 우리말로 창작되었다. 당시 대중들과 후손들에게까지 끊임없이 사랑받았고,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문학 갈래로 자리하게 되었다. 가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창작층의 변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시대상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 松江歌辭는 우리의 중세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관동별곡 · 사미인곡 · 속미인곡 세 편은 곧 송강상국 정문청공(松江相國 鄭文

1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83, p.201.

淸公)이 지은 것이다. 공의 시사(詩詞)는 청신·경발(淸新·警拔)한 까닭에 인구(人口)에 회자되었거니와 가곡(歌曲)은 고금에 더욱 훌륭하고 뛰어[妙絶]나 장편 단집(長篇 短什)이 성하게 전하지 않음이 없다.”¹⁶⁾

松江歌辭는 맑고 깨끗한 언어 활용과 착상이 독특하고 뛰어난 문학적 유희성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松江이 창작한 여러 시가 작품 중에서도 ‘歌曲’이라고 불린 가사 작품은 “고금에 더욱 훌륭하고 뛰어[妙絶]나”서 그대로 후손에게 계승되었다는 것이다. 당대에 노래와 글로 모두 전해졌던 松江歌辭의 음악적 형태가 전해지지는 않지만, 언어에서 느껴지는 리듬감과 생동감은 그 뛰어난을 짐작하게 한다.

“한국의 시가는 시대를 거치면서 그 시대의 삶의 조건에 어울리는 다양한 양식이 등장했지만, 우리 고유의 시가 양식에서 우리나라의 형식적 정제미와 운율 감각은 현대까지 계승되고 있다.”¹⁷⁾ 오늘날 학습자는 15세기의 언어 형태가 고스란히 남은 松江歌辭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미적 감각과 음악성이 이어져 왔음을 이해하게 된다. 당시의 형태를 보존한 존재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언어의 발화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당시 담화 습관에 익숙하지 않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조선시대의 가사 작품은 낯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松江歌辭가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것은 주제와 이를 우리말로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다양한 당시의 가치들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는 가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松江歌辭를 가사의 대표 작품으로 소개하면서 그 주제를 ‘연군’과 ‘자연 친화’로 정의하고 있다.

“가사는 행수(行數)에 제한이 없는 4음보의 시가로, 짧은 형식의 시조에 담을 수 없는 유장한 감흥이나 복잡한 경험을 표현할 수 있어 시조와 상보적 관계를 이루며 발전하였다. 가사는 고려 말에 발생한 후, 사대부에게 수용되어 차츰 그들의 기호에 맞는 형식으로 가다듬어졌다. 정극인의 ‘상춘곡(賞春曲)’, 송순의 ‘면양정가(俛仰亭歌)’, 정철의 ‘사미인곡(思美人曲)’과 ‘속미인곡(續美人曲)’ 등이 이 시기의 대표

16) 鄭澈, 『松江別集』, 跋(관서본). “右關東別曲思美人曲續美人曲三篇 卽松江相國鄭文淸公之所著也 公詩詞 淸新警拔 故膾炙人口 而歌曲尤妙絶今古 長篇短什無不盛傳.”(김병국, 『『정언묘선』의 품격론』, 최진원, 『고전시가의 미학』, 2003, p.33 풀이 인용.)

17) 정재찬 외, 『고등학교 문학』, (주)천재교육, 2016, p.133.

적인 가사로서, 주로 연군이나 자연 친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¹⁸⁾

연군은 조선시대 정치 이념인 성리학에 따라 국가의 근본인 임금을 섬기는 마음을 남녀의 사랑에 빗대어 戀君之情이라 칭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 사대부라면 항상 표방하는 정서가 연군인 것이 사실이다. 조선조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임금을 받들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신하된 자의 당연한 감정이자 도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군 의식은 사대부 문학의 주요한 주제이자, 정서였다. 이러한 정서가 임금에 대한 절대적 충성의 약속이나, 입은 은혜에 대하여 끝없이 감사하는 테마를 형성하였다.”¹⁹⁾ 사대부의 신분으로 관직에 올라 임금을 섬기는 가사 작가의 작품에 당대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다.

조선시대 가사문학에서 연군은 거의 모든 작품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이자 소재이다. 조선시대 군신 관계는 유교적인 이념에 따라 신하는 군주에게 충성을 다한다. 사대부 작가의 가사 중 ‘님’을 대상으로 애정이나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들은 임금을 향한 신하의 충성과 절개를 담아 부른 忠臣戀主之詞로 분류된다. 松江歌辭의 대부분 작품이 이에 속하지만, 그중에서도 「思美人曲」과 「續美人曲」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초나라의 楚辭 중 屈原의 「離騷」와 「思美人」, 고려시대 가사 작품인 鄭敳의 「鄭瓜亭」과 같은 고려가요, 조선시대 曹偉의 「萬憤歌」 등이 「思美人曲」과 「續美人曲」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의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남녀 간의 애정을 표현하면서 이면에 연군의 주제를 담고 있는 특징이 松江의 작품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思美人曲」과 「續美人曲」은 죽음을 불사하는 한결 같은 순정을 잘 표현하여 우리나라의 「離騷」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의 남성 화자와 우의적인 여성 화자의 발화가 뒤섞인 「離騷」와 달리 松江歌辭는 일관되게 여성 화자가 곡진한 애정을 드러내는 점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야기의 흐름이 비약적으로 진행되어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환생의 모티브를 활용함으로써 대상과의 합일을 꿈꾸는 마지막 부분은 송강만의 문학적 특징을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18)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주)비상교과서, 2016, p.161.

19) 김진옥, 「松江鄭澈詩文學研究」,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pp.141-142.

가사의 또 다른 주제 의식 중 하나인 ‘자연 친화’는 松江歌辭 중에서도 「星山別曲」과 「關東別曲」에서 나타난다. 한국 문학에서 자연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로 인식되며 이것이 문학에서 자연친화적 표현, 즉 자연에 대한 미의식으로 표출된다. 특히 松江은 「關東別曲」에서 자신만의 자연에 대한 미적 감각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자연 친화’는 동양 사회 특유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서 동양과 서양은 서로 다르다. 서양에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靈長)으로 인식되나, 동양에서 인간은 만물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서양에서 자연은 인간이 정복해야 할 대상이지만, 동양에서의 자연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문학에서는 자연친화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라고 노래한 ‘청산별곡’이나 조선 시대 때 강호(江湖)를 노래한 시조, 그리고 자연을 소재로 한 청록파의 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²⁰⁾

자연을 노래한 古典文學 작품은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은 우리 민족의 삶의 밑바탕으로 古典文學에서는 주로 ‘山水’라고 칭하여 왔다. 넓은 범주로 보면 상고시대부터 이러한 개념의 범주로 시작되어 정확하게 자연 환경이 미적 대상으로 인식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으나,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거쳐 조선시대에도 그 예술적 흐름이 이어져 왔다.

조선 전기에 사대부가 주로 창작한 가사문학은 15세기에서 16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한문학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시조, 가사, 경기체가 등의 국문학 중심의 시가문학이 발전해온 시기다. 성리학은 사림과의 성장과 더불어 조선 사회의 정치적 이념이 되었다. 사림과 사대부가 창작한 가사문학은 성리학이 주된 사상적 배경으로 자리하였다. 조선 전기 사대부, 특히 사림은 철학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중점이 되는 성리학을 그 근본으로 삼았다. 성리학은 우주적 진리를 찾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 학문과 작품 창작은 모든 이욕을 버리고 구도적 삶 속에서 道에 이르고자 하는 방법으로 발현된다.

20) 한철우 외, 위의 책, 2016, pp.125-126.

“이들이 추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성리학이라고 한다. 성의 대상은 인간이고, 리의 대상은 자연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인간중심의 학문이며, 정신중심주의 철학이다. 이들은 먼저 자연현상을 관찰한다. 이를 格物이라 한다. 그리고 이 자연현상을 통하여 자연현상으로서의 성장사멸과 같은 자연의 생명질서, 춘하추동과 같은 계절의 변화나 주야의 바뀔과 같은 천지운행의 질서 등의 이법에 대하여 탐구하여 그 근원과 본질에 대하여 깨닫고자 한다. 이것이 치지이다. 즉 격물치지이다. 이 격물치지는 이론철학의 영역이다. 이론적으로 알고자 하는 대상이 자연의 이법과 천지운행의 질서와 같은 근원적이고 현상의 본질인 것이다.”²¹⁾

格物, 山水를 통하여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근본과 현상의 본질을 탐구하여 가장 근원적인 것, 바로 우주적 진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山水 안에서 山水를 철학적 관점에서 탐구하고 이 속에서 아름다움을 깨닫는 것, 그것이 조선시대 유학자들에게는 평생에 걸친 과제였다.

유학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하나 더 있었다. 조선조 사대부는 경국제민을 이념으로 삼아 임금에 대한 충과 애민 정신은 인간으로서의 도를 실천하였다. 벼슬길에 나아가 임금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돕고, 예를 다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는 것이 君자의 도리이자 역할이었다.

그러나 이런 생활 속에서도 君자의 예에 옳지 않다거나 자신의 가치관과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벼슬을 사양하고 山水로 물러났다. 성리학적 이념을 현실에서 실현함으로써 이상 세계를 펼치고자 했던 사대부들은 이것이 좌절되었을 때, 山水에서 진정한 이상 세계에 대한 근본을 노래하였다.

“山水를 노래한다, 山水를 즐긴다는 말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를 떠나 원래부터 그러한 독립적 존재에 대한 思惟이며 동시에 사회의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기능성에서 벗어나 원래부터 그러한 혹은 자신이 성장하면서 습득하게 된 사회적 문화의 양식을 탈피하여 본래적인 자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²²⁾

21) 孫五圭,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실린 조선조시가의 문학사상지도』, 『인문학연구』 제4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pp.141-142.

22) 孫五圭, 『산수미학탐구』, 제주대학교출판부, 2006, p.17.

조선시대 사대부에게 山水는 자신의 성리학적 가치관의 진리를 탐색하고 도덕을 실천하여 유학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공간이자 매개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山水를 노래한 산수문학은 조선시대 사대부의 성리학적 理致를 바탕으로 山水를 철학적 사색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완성된 山水美를 형상화한 문학 작품²³⁾이다.

崔珍源은 “산수문학은 시조와 가사에서 형성되었다.”²⁴⁾고 하였다. 시조와 가사, 즉 시가는 서정의 문학이다. 서정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과 인간의 만남에서 생겨나는 감정을 펼쳐내는 것이다. 17세기 후반 ‘白岳詞壇’의 金昌協은 산수문학 중 시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하였다.

“시가의 묘는 山水와 상통한다. 대개 맑고 빛나며 높고 우거지고 기이하고 화려하며 그윽하고 웅장하며 그 경계를 다하기 어려워, 바라보매 신이함이 솟구치며 다가매 마음이 융통하여지는 것이 山水 중 뛰어난 것이다. 시가 또한 그러하니, 이들은 서로 관련되어, 정기가 서로 흘러 景物과 意趣가 상호간에 발하니, 이는 진실로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²⁵⁾

산수문학은 중국 남북조시대에 謝靈運에 의해 창시된 문학유파로 한시로 그 흐름이 형성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사대부 계층이 노래한 시조와 가사의 발달로 순수 국문학에서 본격적인 산수문학의 기틀을 형성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조선조 성리학을 집대성한 退溪 李滉의 시조 「陶山十二曲」을 들 수 있다.

幽蘭이 在谷하니 自然이 듯디도해
 白雲이 在山하니 自然이 보디도해
 이등에 彼美一人을 더욱닛디 몰하애 (陶山十二曲 제4수)

23) 孫五圭, 앞의 책, 2000, p.17.

24) 최진원, 「국문학에 나타난 자연」, 『도남학보』 10집, 1987, p.28.(孫五圭, 위의 책, 2000, p.17 재인용.)

25) 金昌協, 「俞命岳李夢相二生東游詩序」, 『農巖集』 권21. “詩歌之妙與山水相通 夫清迥峻茂 奇麗幽壯 其爲態多變 其爲境難窮 望之而神聳 卽之而心融 此山水之勝也 而詩歌亦然 故二者相值而精氣互注焉 景趣交發焉 是固有莫之然而然者矣”(김진희, 『송강가사의 수용과 맥락』, 새문사, 2016, p.86 풀이 인용.)

‘幽蘭在谷’과 ‘白雲在山’과 같은 景物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옮겨감으로써 객관적 존재물에 불과했던 自然景物이 미적 대상이 되어 ‘듣디도해’, ‘보디도해’처럼 감상자의 정감을 드러내게 된다. 감각되는 외형적 현상을 통해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인식되는 內容美는 상상적 존재로 인식된다. “이 문학적 상상이야말로 가치로서의 山水美를 발견하게 되는 관건이다.”²⁶⁾

隱居를 통해 山水를 생활에서 접하며 마음이 더욱 깊어짐으로 山水에서 미적 감동을 느끼고, 그 속에서 가치로서의 美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退溪는 격물을 통해 우리 주변의 모든 자연 현상인 大自然의 理致를 깨닫고자 하였다. 理는 氣의 작용으로 어떤 형체를 형성하며, 이로서 원래 무형이었던 理가 이론적으로 설명되어 관념적 思惟로서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다.

退溪는 山水景物을 감상하면서도 외형적 현상으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 현상 안에 내재된 大自然의 이법, 즉 理의 세계를 인식하고자 한 것이다. 이로서 退溪의 미적 체험은 현상을 뛰어넘어 정신적 思惟의 세계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대부의 산수문학은 “삶의 본질을 외면하는 부귀공명의 유혹과 이익의 집착을 벗어나 山水間에 隱居하여 학문에 침잠하고 存養省察을 게을리 하지 않는 독선의 즐거움과 大自然 속으로 비상하는 정신적 자유 속에서 우주적 진리인 大自然의 이법에 대한 감동을 노래”²⁷⁾한다.

栗谷 李珣 또한 경치를 감상할 때,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움만을 보고 그 자연 안에 깃든 진리의 근본을 깨닫지 못하면 보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하였다.²⁸⁾ 금강산과 같은 명산을 보고 감탄하고 즐기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달을 때 얻는 즐거움이 참된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즐거움을 찾기 위해 많은 사대부들이 진리 탐구와 동시에 작품 창작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사대부에게 山水란 大自然의 놀라움을 통해 그 속에서 진정한 미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성리학적 이념의 성취를 얻는 소재이자 自然美 그 자체라고 할 수 있

26) 孫五圭, 앞의 책, 2000, p.33.

27) 孫五圭, 위의 책, 2000, p.35.

28) 李珣, 『洪恥齋仁祐遊楓嶽錄跋』, 『栗谷集』(반교어문학회, 『조선조 시가의 존재양상과 미의식』, 보고사, 1999, p.212 참조)

다. 사대부 작가는 이러한 自然美를 內容美와 形式美의 균형적 조화로움으로 승화한 藝術美를 자신의 작품에 담고자 하였다. 특히 작품 속에 드러나는 가치는 산수문학의 內容美에 해당한다. 이러한 內容美는 감상자의 미의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山水景物을 의미 존재로 의식함으로써 발견되는 것이다.

山水의 內容美는 감상자의 문화 의식에 의한 가치로서의 美로 존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 작품에 드러난 사회나 개인의 문화 의식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內容美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파악할 수 있다.²⁹⁾

松江의 가사 작품은 山水를 다룬 가사 작품들과 다른 점이 나타난다. 구조적인 면에서는 다른 조선 전기의 山水를 소재로 한 가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예를 들어 松江歌辭와 함께 대표적인 가사 작품으로 손꼽히는 丁克仁의 「賞春曲」 또한 「關東別曲」과 유사하게 부정적인 현실과 내적 갈등을 정서적으로 풀어내는 구조이다.

山水隱居를 그린 사대부 가사는 내적 갈등을 山水美의 내면화로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그러나 松江은 자연에서의 興趣는 그대로 표현하는 동시에 외부와 내면의 갈등을 모두 겉으로 드러내고, 이를 꿈과 상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포부 또한 버리지 않음을 표현하였다.

松江歌辭는 작품 안에서 화자의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함으로써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독창성을 지니게 되었다. 우리는 松江歌辭를 통해 당시의 가치관과 함께 인간으로서 지니게 되는 다양한 욕구를 문학적으로 승화한 양상을 모두 감상할 수 있다. 이로써 다른 조선시대 가사 작품의 감상에 있어서도 山水隱居와 현실 인식이 각각의 작품마다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 松江歌辭의 특징과 비교하여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학습자들은 松江歌辭가 창작되고 노래되었던 당시 우리말의 미묘한 즐거움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고전을 통해 학습자가 당대의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는 교육적 가치로서 충분하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암기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古典文學을 멀어지게만 할 뿐이다. 우리는 현대적 감각으로 古典文學

29) 孫五圭, 앞의 책, 2006, pp.24-31 참조.

을 새롭게 이해하고, 간접적 경험으로 문학 작품을 활용해야만 松江歌辭는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 제재로서의 現在性

松江 鄭澈의 가사 작품은 근대 교육과정 내의 국어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꾸준히 수록되어 왔다. 특히 「關東別曲」은 제1차-제7차 국정 교과서부터 2007 개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인정 국어 교과서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과서에 등장한 작품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심화과목인 문학에서 여러 종의 교과서가 「續美人曲」을 수록하고 있다.

류수열은 「關東別曲」의 교재사적 맥락을 정리하며 “「關東別曲」은 문학교육의 목표, 혹은 범위를 더 넓혀 국어교육의 목표를 기준으로 한 모델 중에서 문화의 계승을 추구하는 ‘문화 모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작품”³⁰⁾이라며 지금까지 「關東別曲」이 꾸준한 국어교육의 교재로 사용되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기 위해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전제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추구하는 인간상을 요약하자면 전인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만의 개성을 확립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발휘하여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로 응용하여 세계와 소통하는 능력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30) 류수열, 앞의 책, 2008, p.436.

이에 따라 국어과 교과에서는 가치관 교과의 성격을 확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현행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교육 목표는 아래와 같다.

“국어’ 교과는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며, 올바른 국어 생활을 통해 건실한 인격을 형성하여 건전한 국민 정서와 미래 지향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과목이다.”

이를 정리하면 문학교육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건실한 인격을 확립하여 공동체의 문화를 계승하는 것이 古典文學을 교육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松江歌辭를 통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하고자 하는 지향점은 무엇인가.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각 단원별로 학습목표에 따른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각 교과별 松江歌辭 수록 단원과 그 단원의 성취기준을 정리해 보면 [표 II-1]와 같다.

[표 II-1]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내 松江歌辭 수록 목록

교과서	출판사	작품	대단원	소단원	교육과정 성취 기준
국어 I	미래엔	관동별곡	6. 소통과 다양성	(2) 관동별곡	[문학16]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 활동임을 이해한다. [독서5] 여러 가지 독서 방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독서 방법을 적용하여 글을 읽는다.
국어 II	비상 교과서 (한)	관동별곡	5. 전통을 따라 흐르는 우리의 한국 문학	(3) 관동별곡	[문학13]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흐름을 이해한다.
	천재 교육 (박)		6. 문학의 효용	(3) 관동별곡	[문학14] 문학이 정서적, 심미적 삶을 고양함을 이해하고 작품을 수용·생산한다. [문학15]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실현한다.

	좋은책 신사고		5. 과거와 현재가 맞잡은 손	(2) 독서 문화와 글쓰기 관습 ① 관동별곡	[문학13]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흐름을 이해한다. [독서4] 시대에 따라 글쓰기의 관습이나 독서 문화가 다름을 이해한다.
	교학사		5. 문학, 삶을 담다	02 관동별곡	[문학14] 문학이 정서적, 심미적 삶을 고양함을 이해하고 작품을 수용·생산한다. [문학15]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실현한다.
	지학사	사미 인곡	5. 전통의 지평에서	(1) 노래 문학의 흐름과 전통 사미인곡	[문학13]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흐름을 이해한다. [독서4] 시대에 따라 글쓰기의 관습이나 독서 문화가 다름을 이해한다.
	두산 동아	속미 인곡	1. 한국 문학의 전통과 독서 문화	(2) 속미인곡	[문학13]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흐름을 이해한다. [독서4] 시대에 따라 글쓰기의 관습이나 독서 문화가 다름을 이해한다.
문학	두산 동아		Ⅲ.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1)	3. 한국 문학의 성장	(7)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에 나타난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8)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9) 한국 문학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을 통하여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한다. (10)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이해한다.
	상문 연구사	속미 인곡	Ⅱ. 문학과 삶	2. 사람들과 문학 (2) 이별	(11)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결과를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내면화한다. (12) 문학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배양하고 이를 표현한다. (13)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14) 문학 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한다.
	비상 교과서 (우)		5. 한국 문학의 특질	01. 한국 문학의 전통	(7)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에 나타난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10)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이해한다.

비상 교과서 (한)		II.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2. 한국 문학의 역사 (2) 조선 시대의 문학	(7)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에 나타난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8)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 해하고 감상한다. (9) 한국 문학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을 통 하여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한다. (10)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이해한다.
천재 교육 (정)		II. 한국 문학의 이해	1. 한국 문학의 특성 (1)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7)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에 나타난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10)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이해한다.
천재 교육 (김)		II.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2. 한국 문학의 성격 (2)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7)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에 나타난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8)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 해하고 감상한다. (9) 한국 문학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을 통 하여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한다. (10)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이해한다.
지학사		3.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2) 중세 문학	(8)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 해하고 감상한다. (9) 한국 문학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을 통 하여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한다.
창비		III. 한국 문학의 역사	2. 조선 시대의 문학	(8)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 해하고 감상한다. (9) 한국 문학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을 통 하여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한다.
해님 에듀	관동 별곡	II.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2) 속미인곡	(7)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에 나타난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8)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 해하고 감상한다. (9) 한국 문학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을 통 하여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한다. (10)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이해한다.

고전	해념 에듀	관동 별곡	Ⅱ. 고전과의 대화	3. 미(美)와 이상을 실천하려는 노력 관동별곡	(6) 현대 사회의 맥락을 고려하여 고전의 내용을 재해석하고 가치를 재평가한다. (7) 고전을 통해 알게 된 사실과 깨닫게 된 점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양을 형성한다. (8) 고전을 읽고 공동의 관심사나 현대 사회에 유효한 문제 등을 중심으로 통합적 국어 활동을 수행한다. (9) 고전을 읽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 (10) 국어에 관한 고전을 통해 바람직한 국어 생활과 국어 문화에 대해 탐구한다.
----	----------	----------	---------------	--	---

松江歌辭가 수록된 대단원을 살펴보면 10종의 교과서에서 ‘한국 문학’을 이해하는 단원에 수록되어 있으며, 3종의 교과서에서는 ‘문학’을 주제로 한 단원에서 松江歌辭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 문학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松江歌辭가 대표적인 작품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이다.

작품별로 살펴보면, 「關東別曲」은 <국어 I> 1종, <국어 II> 4종, <문학>과 <고전> 각 1종에 수록되어 있다. 「思美人曲」은 <국어 II> 1종에 실려 있다. 「關東別曲」은 우리 전통 문학을 이해하는 작품으로 1차 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해 왔다.

문학의 사회적 소통 기능과 독서 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국어 I>과 고전 그 자체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 <고전>을 제외하고, 松江歌辭가 가장 많이 수록된 <국어 II>와 <문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출판사별로 단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수 등장하는 성취기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 II>

[독서4] 시대에 따라 글쓰기의 관습이나 독서 문화가 다름을 이해한다.
[문학13]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흐름을 이해한다.
[문학14] 문학이 정서적, 심미적 삶을 고양함을 이해하고 작품을 수용·생산한다.
[문학15]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실현한다.

<문학>

- (7)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에 나타난 전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 (8)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 (9) 한국 문학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을 통하여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한다.
- (10)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이해한다.

위의 성취기준을 통해 학습자가 松江歌辭를 제재로 하여 성취해야 할 학습 목표를 파악할 수 있다. <국어II>에서는 시대에 따른 한국 문학과 독서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경험하여 다양한 가치를 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 <문학>에서는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인 松江歌辭를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 특징과 한국 문학의 흐름과 전통을 이해하며, 넓게 나아가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원의 분류에서 살펴본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松江歌辭를 통해 ‘한국 문학’의 역사와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교수·학습의 목표라 할 수 있다. 문학사적 흐름에서 松江歌辭를 여러 관점으로 접근하고,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작품을 통해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특질을 파악해야 한다.

박연호는 가사문학은 중세 시기 유학을 신봉하던 사대부들에 의해 창작되었기 때문에 유가에서 요구하는 사대부의 가치관과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사대부에 대한 이해는 가사문학의 흐름, 또한 나아가서 조선시대 문학사를 이해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기반지식³¹⁾이라는 것이다.

즉, 작품을 통한 문학사적 흐름 파악을 위해서는 당시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치는 각 개인이 삶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과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기제이다. 즉 어떤 가치를 지녔는가에 따라 개인의 삶의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³²⁾ 문학 작품 자체의 이해와 감상과 함께 작품의

31) 박연호, 「고전문학의 교육 목적과 가사문학 교육 방안」, 『韓國詩歌研究』 제38호, 한국시가학회, 2015, pp.141-142.

32) 김도남, 「문학 독서에서의 가치 교육 방법」, 『독서연구』 제12호, 한국독서학회, 2004, pp.1-2.

배경을 이해한다면 학습자가 더욱 풍부한 문학적 체험을 경험하고, 한국 문학의 특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문학의 특질을 파악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우리 공동체에서 그동안 지켜 온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한다는 것을 뜻한다. 오랜 시간 향유된 古典文學은 과거 우리 공동체가 중시했던 가치관을 되돌아보고, 오늘날과 비교하여 인간 보편적인 가치를 발굴해 내는 거울이 되어 준다.

보편성과 특수성은 인간 공통의 중요 가치와 넓게는 한 공동체, 좁게는 작가의 고유한 가치관이 문학에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조금씩 범위가 달라지기도 하고, 오랜 세월 그대로 자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치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필요한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다.

II장과 III장에서는 松江歌辭 작품을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松江歌辭에 드러난 시대적 가치와 보편적 가치, 그리고 작가의 독특한 시각을 작품의 形式美와 內容美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고안하고자 한다.

Ⅲ. 松江歌辭의 산수문학적 성격

1. 思惟 공간으로서의 山水

松江 鄭澈의 호인 松江은 昌平(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의 강 이름인 松綠川의 별칭이다. 松江은 鄭澈이 유배를 떠난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안식처가 되어준 근원적 장소이자 山水라 할 수 있다.

昌平은 松江의 山水로, 시적 정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거점이 된다. 1545년 松江의 나이 10세에 乙巳土禍가 일어나면서 집안 전체가 이에 연루된다. 松江이 16세 되던 해(1551년)에 원자 탄생의 은사로 아버지의 유배가 풀리게 되고, 아버지와 함께 昌平으로 하향하여 27세(1562년)에 과거에 오르기 전까지 이곳에서 거처한다.

松江은 沙村 金允悌의 문하에 들어가면서 배필을 만나고 경제적 안정도 찾게 된다. 松江은 십여 년 동안 昌平에서 많은 스승을 만나고, 유명한 학자들과 교유하게 된다. 俛仰停 宋純과 石川 林億齡으로부터 문학적 영향을 받았고, 河西 金麟厚와 高峯 奇大升으로부터는 학문적으로 사사 받았다. 栗谷 李怡, 牛溪 成渾, 龜峯 宋翼弼 등과 교유한다.

江강湖호에 病병이 김피 竹獨林님의 누엇더니, (關東別曲)

「關東別曲」 서두에 묘사된 “竹獨林님”도 星山을 뜻한다. 松江은 정쟁으로 인해 정치 현실에서 진퇴를 거듭할 때마다 星山(昌平)을 隱居의 근거지로 삼고 자신을 치유한다. 「星山別曲」의 배경이 된 곳도 바로 이곳이다. 「星山別曲」의 창작 시기에 대한 일부 논란은 있으나 山水에 隱居해 자신에 대한 고민을 노래한 작품으로 「關東別曲」과 山水에 대한 정서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星山別曲」은 허구적 인물인 ‘棲霞堂 息影亭 主人’과 ‘손’을 설정하여 星山의 사계 경관과 山水에서 느끼는 감회를 서사적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손과 息影亭 主人과 화자를 따로 설정하여 작가가 경험한 山水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자 하였다. “자아분리는 현실적 존재로서의 삶의 방식과 이상적 존재로서의 삶의 방식에 대한 자기반성이며, 이러한 분리를 통하여 그 각각의 삶의 방식을 영위하고 있는 주체로서의 자신의 삶의 원리에 대한 사색으로 이어져 현상적 원인보다는 내면성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그 확실한 근거를 파악하고자 하는 山水 감상의 태도”³³⁾이다. 많은 논의에서 손과 주인의 실체를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손과 주인(棲霞堂 息影亭 主人) 그리고 화자를 자아분리로 보고 이들이 감상하는 山水에 대한 관점에 집중하기로 한다.

「星山別曲」은 크게 서사, 본사, 결사로 이루어져 있다. 본사는 춘경, 하경, 추경, 동경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이를 정리하면 [표 III-1]과 같다.

[표 III-1] 「星山別曲」의 구성

서사		손이 息影亭 主人에게 星山에서 생활하는 연유를 물음.
본사	춘경	산중 생활을 노래하고, 봄날의 한가로운 마음으로 山水를 즐기는 여유를 표현함.
	하경	星山의 한가로운 여름 풍경을 즐김.
	추경	오동나무에 달이 걸린 풍경과 뱃놀이의 흥겨움을 그림.
	동경	눈으로 뒤덮인 겨울 星山의 풍경을 보며 山水를 즐기는 마음을 노래함.
결사		힘한 세상의 시름을 접어두고 山水의 風流를 노래함.

한 장소의 春夏秋冬을 노래하는 「星山別曲」의 서사, 본사, 결사의 구조는 앞선 가사 작품인 宋純의 「俛仰亭歌」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星山別曲」은 山水 隱居를 노래하는 가사 작품의 전형성을 따르고 있다. 「星山別曲」을 중심으로 사대부의 山水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3) 孫五圭, 앞의 책, 2006, p.135.

엇던 디날 손이 星山산의 머물며서
 棲霞하堂당 息影影亭정 主人인아 내 말 듯소.
 人인生생世世間간의 道훈 일 하건마는
 엇디흔 江강山산을 가디록 나이 녀겨
 寂寂寞寞 山山中중의 들고 아니 나시논고. (星山別曲)

「星山別曲」에서는 山水에 隱居하는 棲霞堂 息影亭 主人을 향하여 손이 “人인生生世世間간의 道훈 일 하건마는 / 엇디흔 江강山산을 가디록 나이 녀겨 / 寂寂寞寞 山山中중의 들고 아니 나시논고.”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인간 세상의 좋은 일들이 가득한데 적막한 산중에 隱居하는지 山水隱居의 이유를 직접적으로 묻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 인간 세상, 즉 현실이 山水隱居보다 좋다는 손의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

“산수문학에서는 거위가 隱居를 지향한다. 隱居는 인위와 인공을 거부하며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며 삶의 자세이다.”³⁴⁾ 자연적인 삶의 실현을 꿈꾸는 사대부의 山水隱居에 의문을 품는다는 점에서 작가인 松江의 山水 인식에 독특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松송根근을 다시 쓸고 竹죽上상의 자리 보아
 저근덧 올라 안자 엇던고 다시 보니
 天천邊변의 찢는 구름 瑞서石석을 집을 사마
 나는 듯 드는 양이 主人인과 엇디흔고. (星山別曲)

손은 이 답을 찾기 위해 “松송根근을 다시 쓸고 竹죽上상의 자리 보아 / 저근덧 올라 안자 엇던고 다시 보”고 주인과 같은 시선에서 山水를 바라보고자 한다. 주인과 함께 山水隱居에 들어 그 세계관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손은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息影亭 주변을 둘러보며 “天천邊변의 찢는 구름 瑞서石석을 집을 사마 / 나는 듯 드는 양이 主人인과

34) 孫五圭, 앞의 책, 2006, p.71.

엇더 혼고.”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떠도는 구름이 서석을 제집 삼아 날아다니는 모양을 감탄하는 것이다. 山水景物의 自然之性에 감득하고, 이러한 감득은 이러한 山水에 머무르는 棲霞堂 息影亭 主人의 모습에 합일된다.

山山中등의 冊책曆력 업서 四사時시를 모르더니
눈 아래 헤턴 景경이 철철이 절노 나니
듯거니 보거니 일마다 仙선間간이라. (星山別曲)

大自然의 신비에 대한 몰입에서 빠져나와 다시 처음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은 山水에 머무는 이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는다. “景경이 철철이 절노 나니” 그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매일이 “仙선間간”이라고 답한다. 그리하여 주인이 山水에서 누리는 四時의 생활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 답을 다각도로 그림을 그리듯이 구현하고 있다.

梅매窓창 아적 벼티 香향氣기에 잠을 썬니
山山翁翁의 篋篋 일이 곳 업도 아니한다.
울 밧 陽양地지 편의 외씨를 빼허 두고
미거니 도도거니 빗김의 달화 내니
靑靑門문故고事사를 이제도 잇다 홀다. (星山別曲)

춘경에서는 중국 진나라 때에 邵平이 나라가 망하자 靑門 부근에서 오이(靑門果)를 심고 서민으로 지냈다는 靑門故事를 인용한다. 봄날 “산옹의 篋篋 일”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등지고 山水에서 검소하게 隱居하는 생활을 노래한다. 고사에서 높게 평가하는 隱居의 삶이 눈앞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桃도花화 편 시내길히 防방草초洲주의 니어세라.
닷 붓근 明명鏡경둥 질로 그린 石石屏屏風풍
그림재 벼들 사마 西서河하로 흙피 가니
桃도園원은 어디매오 武武陵릉이 여기로다. (星山別曲)

“防방草초洲주”를 武陵桃源에 비교하면서 봄의 계절감과 자연의 소생을 노래하고 있다. 무릉도원은 理想郷이다. 理想郷은 상상의 공간으로 단지 개인의 정신 속에서 펼쳐지는 상상으로 초월적 성격이 짙다. 이러한 理想郷은 현실 부정이나 거부로 인한 도피로 나타나며 산수문학에서는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자연을 찾아다니는 행위로 상징화된다. 이러한 理想郷은 세상과 단절된 곳이다. 그래서 세상과 떨어져 현실의 다툼이 없는 歸去來處로 도피와 동경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理想郷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물들은 서로 아무런 유사성이 없이 나열되어 있다. 景物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自然之性을 표현하기 위해 활용되었지만, 각각의 景物을 경험함으로써 그 성질이 나타내는 진리에 대해 思惟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星山別曲』에 나타난 자연은 도의를 기뻐하고 심성을 기르는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매개물은 전혀 아니고 개인적 감흥을 자아내는 외적 미의 대상일 따름이다.”³⁵⁾

남남風풍이 건듯 부러 綠녹陰음을 헤터 내니
 節절 아는 괴꼬리는 어드러서 오뎃던고.
 황羲皇희 벼개 우희 풋즙을 얼끗 씨니
 空空中중 저즌 欄欄干간 물 우희 씨 잇고야.
 麻마衣의를 니피 츄고 葛갈巾건을 기우 쓰고
 구브락 비기락 보는 거시 고기로드. (星山別曲)

하경에서는 星山の 한적한 여름 경치를 감상하고 있다. ‘괴꼬리’ 노랫소리에 ‘풋즙’을 깨어 ‘空空中중 저즌 欄欄干간’에서 ‘고기’를 보며 어부옹의 즐거움을 체험한다. ‘홍백련’의 향기 속에 인간 만사를 모두 잊고 ‘태극을 뜻잡는 듯’, ‘옥자를 헤엿는 듯’하며 진리를 찾고자 하는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낀다.

銀은河하를 씌여 건너 廣광寒한殿전의 올랐는 듯.

35) 최상운, 『송강가사에 있어서의 자연과 현실』, 『조선조 시가의 존재양상과 미의식』, 보고서, 1999, p.761.

짝마즌 늘근 술란 釣釣臺대에 세여 두고
 그 아래 비를 띄워 갈대로 더더 두니
 紅蓼花와 白蘋洲주 어는 스이 디나관디
 環환碧벽堂당 龍용의 소히 빛머리에 다하세라. (星山別曲)

추경에서는 은하수를 건너 “廣광寒한殿전의 올랐는 듯” 이상적인 자연에서의 즐거움을 노래한다. 어부옹적 면모에 이어 뱃놀이는 山水에서 근심 없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습을 환상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空공山산의 싸힌 님홀 朔삭風풍이 거두 부러
 駈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모라오니
 天천公공이 호스로와 玉옥으로 고졸 지어
 萬만樹수千천林림을 꾸며곰 낼세이고.
 압 여홀 2리 어러 獨독木목橋교 빗것는디
 막대 멘 늘근 중이 어니 덜로 간닷 말고.
 山山翁翁의 이 富부貴귀를 넘드려 현스 마오. (星山別曲)

동경에서는 “空공山산의 싸힌 님홀 朔삭風풍이 거두 부러 / 駈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모라오니” 온 산이 눈으로 가득 덮인 星山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星山의 겨울 경치가 “호스로와”서 “늘근 중”에게도 “이 富부貴귀를 넘드려 현스 마”라고 당부한다. 山水間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표현은 현실 세계의 유혹에 흔들릴까 두려워하는 화자의 속내를 반어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라 하겠다.

息影亭 主人의 사계는 山水에 隱居하여 사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息影亭 주변의 자연을 사실적인 생활의 공간으로 그리지 않는다. 선선이 사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려 놓았다. 선인들의 風流를 관념적으로 받아들여서, 경치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자신의 興趣를 더 강조하여 나타냈다.³⁶⁾

山山中중의 벗이 업서 漢한紀기를 빠하 두고

36) 최상은, 『조선 사대부가사의 미의식과 문학성』, 보고사, 2004, p.229.

萬만古高人人物물을 거스리 헤여흐니
聖성賢현도 만커니와 豪호傑걸도 하도 할샤. (星山別曲)

결사에서는 이러한 理想鄉인 山水에 隱居해서도 진정한 고락을 즐기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모습을 보인다. “聖성賢현도 만커니와 豪호傑걸도 하도 할샤.”는 현실에서 성취를 이룬 이에 대한 흥망, 즉 시간의 흐름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山水 속에서 성현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은 유학자로서의 도리이다. 성현의 이야기에 감탄하는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의 성취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더욱 확실해진다.

하늘 삼기실 제 곳 無무心심홀가마는
엇디흔 時시運운이 일락 배락 흐얏는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들음도 그지업다.
箕기山산의 늘근 고블 귀는 엇디 싯똥던고.
一일飄표를 썰틴 후의 조장이 ㄴ장 높다.
人人心심이 늦 ㄴ트야 보도록 새롭거늘
世世事사는 구름이라 머흐도 머흘시고. (星山別曲)

歸去來의 理想鄉을 실친한 箕山의 許由를 칭송하고 부러워하지만 “世世事사는 구름이라 머흐도 머흘시고.”라는 구절을 통해 아직 현실에 대한 고민을 버리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세상의 일이 구름처럼 자신의 주변에 떠다니지만, 그 거리감이 하늘과 땅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엇그제 비즌 술이 어도록 니건느니.
잡거니 밀거니 슬크장 거후로니
ㅁ음의 미친 시름 저그나 흐리느다. (星山別曲)

山水에서도 현실 정치를 그리워하는 화자는 그 고민을 “엇그제 비즌 술”로 잊고자 한다. 그러나 술은 잠시 시름을 멈추는 것이지 영원한 망각이 될 수 없다. 이는 山水에 머물지만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다시 현실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을 표출한 것이다.

손인동 主主人인인동 다 니저 브려셔라.
長장空공의 찢는 鶴학이 이 골의 眞진仙선이라.
搖요臺대月월下하의 鶯희 아니 만나산가.
손이셔 主主人인드려 널오더 그디 권가 ㅎ노라. (星山別曲)

결사의 마지막 부분에는 손과 주인의 일치를 드러내고 있다. 손과 주인은 각기 다른 山水 인식을 지니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손인동 主主人인인동 다 니저 브려” 손과 주인이 같은 고민을 갖고 일치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그디 권가 ㅎ노라.”라며 자연합일의 낭만적인 풍모로 작품을 끝맺고 있다.

「星山別曲」의 심상은 隱居에 대한 선망에서 갈등으로 그리고 세속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조의 감정으로 흐른다. 星山은 신선이 無爲自然 하는 理想郷도 아니고 유학자가 이념 성취의 때를 기다리는 歸去來處도 아니다. “星山은 현실을 초탈하는 공간, 현실과 완전히 단절된 또 하나의 세계”³⁷⁾이었다. 그러므로 진정한 山水의 園林이 아니기 때문에 松江은 星山을 동경하지만 山水에 隱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다.

2. 山水遊覽의 風流性

「關東別曲」은 松江이 진도군수 이수의 뇌물 사건으로 탄핵을 받아 사직하고 귀향하였다가 45세 되던 선조 13년(1580년) 강원도 관찰사에 임명받고 원주에 부임했을 때, 관동팔경을 遊覽하며 느낀 자신의 감회를 노래한 작품이다.

「關東別曲」은 크게 서사, 본사, 결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사는 昌平에서 출발하여 한양을 거쳐 회양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본사는

37) 김진욱, 「鄭澈 文學에 드러난 自然觀 研究」, 『한국시가문화연구』 제13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04, p.141.

내금강 遊覽과 관동팔경을 遊覽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결사는 망양정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아침을 맞이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표 III-2] 「關東別曲」의 구성

서사	부임 여정	창평 - 한양 - 평구 - 흑수 - 섬강 - 치악 - 동주-회양
본사	내금강	만폭동 - 금강대 - 진혈대 - 개심대 - 화룡소 - 불정대 - 산영루
	관동팔경	총석정 - 삼일포 - 의상대 - 경포대 - 죽서루 - 망양정
결사	망양정에서 달맞이	몽중선인과 대화

서사에서는 관동지역으로 부임하는 동기와 과정을 술회하고, 본사에서는 관찰사로서 자리 잡은 다음 떠나는 내금강과 동해안 遊覽을 묘사하고 있으며, 결사에서는 망양정의 달맞이와 몽중선인과의 대화를 그리고 있다.

부임지로 이동하는 과정을 그린 서사와 관동을 遊覽하는 본사와 결사에는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 서사, 본사, 결사는 시간적 변화, 내용뿐만 아니라 松江이 山水를 대하는 방식과 그 감정이 감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江江湖호에 病병이 汲피 竹獨林님의 누엇더니,
 關關東동八팔百百릭리니에 方方面면을 맞디시니,
 어와 聖성恩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하다. (關東別曲)

「關東別曲」에서는 “江江湖호”라는 용어로 山水를 표현하고 있다. “江江湖호에 病병이 汲피”는 山水에서 隱居하는 삶에 대한 동경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는 공간이 “竹獨林님”이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關關東동八팔百百릭리니에 方方面면을 맞디시니, / 어와 聖성恩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하다.”를 보면 어명으로 관동지역 관찰사를 맡게 된 즐거움과 감사함이 드러난다. 하지만 山水 隱居에 대한 사색이나 감흥은 드러나지 않고, 歸去來³⁸⁾의 지향 또한 단편적으로

38) 崔珍源은 歸去來가 조선 양반의 공통된 생각이자 간절한 憧憬이었다고 밝히고 있다.(崔珍源, 『

보인다. 서사에서 관동 지역으로 부임하는 동안 松江에게 山水는 자신의 역할을 다시 찾아준 임금에 대한 感恩을 표출하는 소재로 활용된다.

昭陽陽江강 느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孤고臣신 去거國국에 白鬢髮발도 하도 할샤,
東동州州쥐 밤 계오 새와 北북寬寬관亭亭의 올라하니,
三삼角角山산 第第一일峯봉이 흐마면 碓리로다. (關東別曲)

소양강의 물이 흐른다는 속성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자연이 아닌 한양에 최종 목적지를 두고 흐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관정에서 보는 풍경도 삼각산을 떠올리며 한양을 떠나는 아쉬움을 달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화자가 꿈꾸는 山水는 大自然의 理致가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들게 한다.

사대부가 山水에 처하고 있어도 항상 현실에 대한 관심은 존재한다. 오히려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그 현실에 대한 관심은 증대된다. 그러기에 山水는 현실인식의 표상이 된다.³⁹⁾

汲汲長惝孺유 風풍彩彩치를 고터 아니 불 계이고,
營營中中들이 無무事事스흐고 時時節절이 三삼月월인 제,
花화川川천 시내길히 風풍岳岳악이 버더 있다. (關東別曲)

본사에서는 관찰사로서의 현실이 안착된 다음 상황을 이야기한다. 자신 스스로를 중국의 회양태수 汲長孺에 빗대며 3월의 봄이라는 계절적 느낌을 덧붙여 목민관으로서 안정된 현재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汲汲長惝孺유 風풍彩彩치를 고터 아니 불 계이고”한 현실은 松江이 만들어낸 이상적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당시 松江이 선조에게 올린 疏에 따르면 관찰사로서 어려운 강원도의 사정을 임금에게 알리고 백성들을 살리고자 한 의지를 볼 수 있다.

“관동 한 도는 피폐된 지 오래되었고 위급이 극도에 달해서 다만 뿌리만 뽑혀지

國文學과 自然』,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77, pp.10-42.)

39) 이승남, 『사대부가사의 갈등표출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3, p.70 참조.

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가지와 잎까지도 벌써 시들어져 갑니다. (중략) 봄이 다 지나도 눈이 녹지 않고 가을이 들기도 전에 서리가 내려, 벼는 여문 것이 적고 논밭에는 수확이 적어서 비록 풍년을 만날지라도 굶주림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40)

“營傭中들이 無무事스”는 사실이 아니다. 여기서 표현된 여유로운 환경은 개인의 주관적 이념을 투사하여 상상적인 세계를 표현해 내는 이상주의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가 遊覽하는 山水는 彼岸處로서의 山水라고 볼 수 있다. 松江歌辭에는 이와 같은 사대부 일반의 山水觀과 더불어 현실 탈출의 彼岸處로서의 山水 인식이 더불어 드러난다. 그러나 松江은 현실과 단절하는 歸去來와는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자가 관찰사라는 위치에서 關東 山水를 마음껏 遊覽하는 즐거움에 있다. 자신의 삶의 공간이 있고, 잠시 머무는 공간으로서 山水를 바라보게 되면서 山水가 현실적 공간이 아니라 관조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山水를 오로지 미적 대상으로 관찰하고, 직관적이고 유미적으로 山水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시어를 정을 강조하기 위해 관념적으로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 景物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百嶽川천동동 겨터 두고 萬만瀑폭동동 드러가니,
銀은 ㄱ툰 무지개, 玉옥 ㄱ툰 龍룡의 초리,
섯돌며 씹는 소리 十십리리의 즈자시니,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關東別曲)

화자는 자신이 보고 느낀 大自然의 아름다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폭포 소리와 형상의 장엄함을 “銀은”과 “눈”, “龍룡의 초리”와 “우레”로 표현하고 있다. 폭포수의 맑음과 웅장한 소리의 특징을 정확하게 집어 낸 것이다.

“山水景物이 지니고 있는 속성이나 품질이란 자연이 소여한 원래부터 지니고 있는 개체로부터의 자질이다. 이것은 山水景物의 모양이나 색깔, 냄새와 같은 감

40) 鄭澈, 「原監司時陳一道弊瘼疏」, 『松江全集』續集 권2 雜著 “況關東一道 凋瘵久矣 倒懸極矣 不但本根將拔 而柯葉亦已傷矣 蓋其地東濱大海 西擁衆山 野無曠平 地皆沙石 經春猶雪 未秋先霜 禾稼寡實 田畝少收 雖逢樂歲 不免啼飢 故民不樂居 境落蕭然 百里之內 不見人煙.”(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64, p.86, 최상은, 앞의 책, 2004, p.216 풀이 인용.)

각에 호소하는 물리적 현상이 대부분이다. 감상자는 우선 일차적으로 감각에 의하여 이러한 물리적 현상을 지각하고 어떤 인상을 받게 되는 것⁴¹⁾이다. 이런 감각적인 느낌은 景物의 속성으로부터 유발되는 느낌을 수용하는 것이다.

폭포, 즉 물의 맑고 깨끗함과 곧고 바른 느낌을 낯선 환경에서 체험함으로써 그 성질에 대해서 성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작가가 생각하는 관념적 이미지, 淸白으로 확대된다. 오로지 바르고 깨끗한 유학자로서의 자세를 大自然의 理致를 통해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어와 造造化翁翁이 현스토 현스홀샤.

늘거든 썬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關東別曲)

山水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금강산과 같이 ‘현사한’ 즉, 수다스러운 느낌의 대상은 “현스토 현스”하게 표현한다. 여기에서 「關東別曲」의 산수유비적이고 유미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아름답고 리듬감 넘치는 우리말의 특징을 백분 사용하여 山水의 絳景美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芙부蓉용을 고жат는 듯, 白빅玉옥을 못것는 듯,

東동溟명을 박츠는 듯, 北북極극을 괴왓는 듯. (關東別曲)

만고대와 만폭동에서는 산봉우리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낀다. 높은 경지에 올라 홀로 외로이 고고한 봉우리는 “芙부蓉용”, “白빅玉옥”, “東동溟명”, “北북極극”의 고귀한 존재로 비유된다. “산봉우리에 대한 서경이지만 서경에 그치지 않고 유가적 이념 - 불굴성, 불연성, 영원성 - 을 표상하고 있다.”⁴²⁾ 이러한 깨끗하고 높은 정신을 표현하는 景物의 특징은 유학자이자 목민관으로서 道를 행할 때 필요로 하는 도덕적 가치와 일치한다. 자신의 이념 세계와 합일하는 自然景物을 발견한 기쁨에 대한 감흥을 노래한 것이다.

눅홀시고 塹망高고臺디, 외로올샤 穴혈塹망峰봉이

41) 孫五圭, 앞의 책, 2006, p.169.

42) 최상은, 앞의 논문, 1999, p.754.

하늘의 추미러 무스 일을 스로리라
千천萬만劫집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는다.
어와 너여이고, 너 그트니 쏘 잇는가. (關東別曲)

화자는 自然景物인 산봉우리를 의인화하여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폭포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自然景物의 특징을 극대화해서 자신의 정감을 담아내는 동시에 자신이 실천하고자 하는 가치를 개념화하는 것이다. “山水景物을 개인의 덕에 비유하여 인간적 가치를 山水美로 전환”⁴³⁾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開기心심臺더 고터 올라 衆등香향城성 바라보며,
萬만二이千천峯봉을 歷歷歷歷히 허여흐니
峰봉마다 밋쳐 잇고 곳마다 서린 기운,
뭉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뭉디 마나.
더 기운 흐터 내야 人인傑걸을 문돌고자. (關東別曲)

이러한 논리 전개는 맑고 깨끗한 산봉우리의 특징을 부각하는 개심대의 조망에서도 나타난다. “더 기운 흐터 내야 人인傑걸을 문돌고자.”는 山水景物이 지닌 大自然의 기운으로 도덕적 가치를 이루어 내는 인걸의 출현을 소망하는 재도적 이상을 興趣에 담아내고 있다.

千천年년 老노龍룡이 구비구비 서러 이서,
晝晝夜야의 흘너 내여 滄창海회에 니어시니,
風풍雲운을 언제 어더 三삼日일雨우를 디련는다.
陰음崖애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關東別曲)

재도적 이상을 스스로도 실현하고 싶다는 마음은 여러 景物을 표현하는 가사 전체에 걸쳐 용해되어 있다. 이것이 모여 “陰음崖애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라는 시구를 통해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목민관으로서의 의무감과 현실참여의 욕구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43) 孫五圭, 앞의 책, 2006, p.263.

山水를 통해 이상적인 현실을 꿈꾸며 유학자로서의 길을 추구하는 모습이 형상화된 것이다. “松江은 사대부의 현실적 이념에 충실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취화된 사물과 연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으로 형상화한다.”⁴⁴⁾

毗盧로峰봉 上上上上頭두의 올라 보니 기 뉘시고,
東동山산 泰태山산이 어느냐 놉뎛던고,
魯魯國國 조분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넙거나 넙은 天천下下 엇씨호야 적닷 말고. (關東別曲)

“毗盧로峰봉 上上上上頭두의 올라 보니 기 뉘시고, 東동山산 泰태山산이 어느냐 놉뎛던고.”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는 화자가 “毗盧로峰봉”과 “東동山산”, “泰태山산”을 같은 선상에 두고 사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孟子』에서 “공자께서 동산에 올라서 노나라를 작다하시고,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다”⁴⁵⁾한 것에서 유래한다. 聖인의 道를 이념 공간으로서의 山水를 통해 깨닫는 것이다.

어와 더 디위를 어이호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호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關東別曲)

이 경지에 오르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에 안타까워하면서도 이에 수긍하고 현실로 돌아가고자 하는 현실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鳴鳴沙사길 니근 물이 醉취仙仙을 빗기 시러,
바다홀 것티 두고 海海棠棠花화로 드러가니,
白백鷗구야 느디 마라, 네 버딘 줄 엇디 아논. (關東別曲)

금강산에서 내려와 관동팔경인 동해바다로 전환된 山水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이완된다. 낮은 지점에서 높고 웅장한 景物을 올려다보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

44) 박영주, 앞의 논문, 2016, p.104.

45) 『孟子』, 「盡心章句 上」, “孔子登東山而小魯, 登泰山而小天下.”(영인본, 월문당, 1976, p.356.)

과 동일선상에서 해당화와 갈매기를 바라보고자 한다. 작가는 山水에 생명을 부여하고 자신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움직이며 이정하게 한다. 이러한 “심리적 거리의 밀착은 山水景物의 해석을 대단히 주관적 입장에서 받아들이게 되어 결국 주관적 감정을 표상하는 상징물화 하게 된다.”⁴⁶⁾

松翁根근을 베여 누어 풋짐을 얼핏 드니,
꿈에 혼 사름이 날드려 닐은 말이,
“그더를 내 모르랴, 上상界계에 眞진仙仙이라.
(중략)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혼 잔 머거 보오.
北북斗두星성 기우려 滄창海海水水슈 부어 내여,
저 먹고 날 머겨놀 서너 잔 거후로니, (關東別曲)

결사에서는 초월의 단계로 나아가며 山水를 통해 바라본 높은 이상과 현실의 한계를 초월의 단계로 풀고자 하고 있다. 꿈속의 진선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나라를 경륜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리고자 하는 포부를 이루기 불가능한 까닭에 발생하는 정치적 좌절과 심리적 갈등 내지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자연 속에서 위로 받고 정신적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신을 신선에 비유하여 자연에 몰입하고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나도 짐을 짊어 바다홀 구버보니,
기뢰를 모르거니 ㄱ인들 엇디 알리.
明明月월이 千천山山萬萬落낙의 아니 비천 디 업다. (關東別曲)

하지만 松江의 상상의 세계는 그만의 현실 대응 태도이자 가치 지향 의식이 반영된 형태로 나타난다. 山水의 현실 안에서 현재의 자신을 신선화 하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 세계인 꿈에서 인간인 자신과 신선의 만남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서 신선을 도교적 영향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46) 孫五圭, 앞의 책, 2006, p.164.

그러나 작품 전체에서 흐름으로 보자면 關東 山水를 통해 비추어 보았던 도의 이상적 실현의 능력을 갖춘 상상의 산물을 ‘진선’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유학적 가치의 内容美를 담고 있는 關東 山水의 특징을 모두 담은 인간화된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젠가는 화자 자신이 이런 신선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것이다.

黃鶴庭堦經鏡 一일字즈를 었디 그릇 닐거 두고,
人人間간의 내려와서 우리를 쏘오는다. (關東別曲)

이 부분에서 특이한 점이 “우리를 쏘오는다.”라는 표현이다. 그동안 關東 山水를 遊覽하는 화자 한 명의 염원이 아니라 자신이 목민관으로서 돌보아야 할 백성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꿈에서 깨어 일출을 봄으로써 山水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자연과의 합일을 꿈꾸지만 현실에서 실천해야 할 것들을 위해 山水를 뒤로하고 현실로 되돌아오는 결말을 그리고 있다.

3. 山水 인식과 자연합일

松江은 성리학이 조선의 정치사회적 이념으로 안정화된 16세기 후반에 활동한 사대부 작가이다. 松江 또한 유학자로서 성리학의 理致를 탐구하고,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목민관으로서 정치를 펼쳤으며, 임금에게 신하로서 충을 다하였다. 넓게 본다면 松江의 山水 인식 또한 사림으로서의 山水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문학 작품은 歸去來를 지향하였던 다른 사대부의 작품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松江은 「星山別曲」을 통해서 山水隱居를 지향하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일반적인 山水觀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星山別曲」은 息影亭 主人의 山水隱居에 따른 風流를 부러워하며, 星山의 서경을 노래하였다. 작가 스스로 歸去來의 이상을 꿈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험한 세상을 피해 隱居를 추구하였지만, 버릴 수

없는 현실로 갈등한다. 결국에는 현실로 나아감을 선택하는 것으로 松江의 강렬한 현실 추구의 욕구를 보여 주는 작품이라 하겠다.

滄창溪계 흰 물결이 흥정子자 알피 둘러시니
天천孫손雲운錦錦을 뉘라서 버혀 내어
닛는 듯 꺾티는 듯 현스토 현스홀샤. (星山別曲)

息影亭 주변의 자연의 오묘한 조화를 노래하는 부분이다. 눈앞의 선경이 주는 아름다움은 大自然의 큰 틀에서 누군가 손을 쓰는 것처럼 놀라워서 “닛는 듯 꺾티는 듯 현스토 현스홀” 정도로 감탄을 자아낸다. 山水의 아름다움은 세속의 번잡한 생각과 판단을 잠시 중단하게 만들어서 오로지 그 아름다움에 몰입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大自然의 敍景에 압도당한 작가는 그 묘미를 언어로 표현하는데 급하여 대상의 본질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松江에게 ‘星山’은 山水隱居를 실천할 수 있는 이상적 공간이지만, 현실에서 삶을 지속하는 공간이 아니라 머무르는 곳에 그치고 있다. 大自然에 압도되고 매료되는 모습에서 山水에 머무는 삶을 부러워하는 듯 보이지만, 손의 현실지향적인 인식과 息影亭 主人의 山水隱居의 삶 모두 긍정하고, 한편으로는 부정한다. 이는 결국 이념과 현실의 합일, 山水隱居의 실천을 소망하고 노래하지만 실제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關東別曲」에 있어서 松江에게 山水는 다른 사대부 작가와 유사하게 관찰의 대상이자 修己의 방편이었다. 그리하여 선경의 아름다움을 修己의 방편으로 형상화한다.

어와 造化化翁翁이 현스토 현스홀샤.
늘거든 췌디 마나 셋거든 솟디 마나. (關東別曲)

山水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금강산과 같이 ‘헌사한’ 즉, 수다스러운 느낌의 대상은 “현스토 현스”하게 표현한다. 여기에서 「關東別曲」의 산수유비적이고 유미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아름답고 리듬감 넘치는 우리말의 특징을 백분

사용하여 山水의 絛景美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이로써 “松江의 「關東別曲」은 구어의 율동성을 활용하여, 여정의 제시와 시적 성격”⁴⁷⁾을 모두 담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山水遊覽을 통해 山水에의 隱居와 현실 사이에서 松江 자신이 현실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景物이 자아내는 興趣를 인간의 감정으로 감득하고 정취한다. 하지만 大自然을 통해 얻은 감득을 학문적 사색으로 펼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정대립은 “松江의 자연과의 교감은 단순한 자연에의 감정이입 단계에서 그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하여 생명 있는 자연, 정기를 서로 주고받는 자연의 정신을 구체화해서 시적으로 다듬어 표현해 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⁴⁸⁾ 이러한 원인이 松江의 강한 현실 정치에 대한 포부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關東別曲」에 나타난 자연은 재도정신에 이끌린 자연”이라는 것이다.

박영주도 “松江은 사대부의 현실적 이념에 충실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취화된 사물과 연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으로 형상화”한다고 평하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풍부한 정감과 더불어 은근한 느낌으로 전해져 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정서 형상화 방식과 표현 효과를 동반한 감성적 특징”에 있다고 하였다.⁴⁹⁾ 山水, 즉 大自然의 理致를 그대로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내면화하고자 하는 理致를 景物의 특성을 활용하여 이와 합일함으로써 자신만의 山水를 표현하였다.

김진옥은 “鄭澈 문학에는 사대부 일반의 자연관과 더불어 현실 탈출의 彼岸處로써 자연관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았다.⁵⁰⁾ 현실의 일탈이라는 의미에서 도교적 세계관의 반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와는 거리가 크다.

「星山別曲」과 「關東別曲」에서 山水에 심취한 인간이 ‘자연과 합일’하는 낭만적 정취를 신선에 비유한다. 「思美人曲」과 「續美人曲」에서는 상상의 세계 속 山水가 理想郷을 강조하는 대상으로서 순리의 표상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山水가 곧 歸去來의 공간이 아닌 현실의 연장이기 때문에 현실과 山水 사이의 접점은 한정된

47) 김진희, 앞의 책, 2016, p.139.

48) 정대립, 『한국 고전문학 비평의 이해』, 태학사, 1991, p.403.

49) 박영주, 앞의 논문, 2016, p.104.

50) 김진옥, 앞의 논문, 2004, p.126.

시간의 일탈이 주는 문학적 상상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는 현실을 초탈하는 선경에의 몰입이나 신선적 심경의 토로를 통한 理想郷에 대한 동경을 노래하는 낭만주의적 계열의 산수문학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슬픔의 정서를 자연에 빚댄 「思美人曲」과 「續美人曲」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대대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 “「思美人曲」과 「續美人曲」에서의 자연은 풍경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松江 자신이 겪고 있는 실제적 상황과 대립적으로 인식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의미한다.”⁵¹⁾ 大自然으로서의 山水가 아니라 자연 현상, 즉 景物이 남녀의 이별이라는 비극적 상황에서 비극을 더욱 심화시키는 외적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는 실재 존재하는 실경이 아니라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관념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다.

大自然은 理致에 따라 늘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하나가 생동한다. 「思美人曲」은 사계의 순환을 「續美人曲」은 낮과 밤의 반복 구조를 통해 自然景物이 생동하고 그치는 진리를 절절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로써 자신이 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大自然의 순리와 동일함을 보여준다. 표면적으로는 山水와 인간인 화자가 대립적인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어적으로 大自然의 理致대로 닮고 싶은 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고 山水는 自然之性에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旬宣(규범성)의 존재로 보는 것이 사대부 작품의 배경이었다. 그러나 松江은 사대부의 山水觀을 수용하는 작품과 더불어 「思美人曲」과 「續美人曲」처럼 산수문학의 범주에서 벗어나 사대부 문학의 영역을 넓히는 독창적인 작품을 창작하였다.

“사대부 중에 벼슬길로 나아갔다가 당대에 더 이상 쓰임이 없으면, 자리를 버리고 자신의 고향에 묻히게 되는데, 그런 이들은 반드시 이름난 산과 아름다운 물이 있는 곳에서 집을 짓고 자연의 즐거움을 누린다. 한편으로 맑고 적막한 즐거움을 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를 걱정하고 대궐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서술한다.”⁵²⁾

51) 최상은, 앞의 책, 2004, p.762.

52) 鄭澈, 「水月亭記」, 『松江全集』續集 권2, “士大夫之進 不得有爲於 斯世棄位而巷處者 必占名山麗水之濱 池館園 之樂 一以爲清閒寂寞之娛 一以敘憂時戀闕之情.”(최상은, 위의 책, 2004, p.761 풀이 인용.)

松江은 현실에서 물러나 山水에 머물러 즐거움을 행하며 ‘기쁨’의 정서를 표현해도 한편으로 현실을 걱정하고 그리워하는 ‘슬픔’의 정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

사대부가 현실 정치에 힘쓰다가 자신의 修己를 위해 山水에 隱居하는 삶은 당연하다. 松江 역시 山水를 유학자로서 생활의 연속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항상 다른 한편에는 현실 정치를 걱정하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한 현실 감각이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이중성이 松江歌辭가 山水隱居를 다룬 작품들과 다른 독특한 산수문학적 성격을 지니게 한 것이다.

이렇게 松江歌辭는 당대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따르면서도 작품 속에 내적 갈등을 표현해 자신만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사대부라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연군가사에서도 山水를 소재로 자신만의 독특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IV. 松江歌辭의 교훈적 특성

1. 戀君之情과 윤리성

松江은 出仕와 落鄕을 되풀이하면서 활발한 문학 활동을 한 작가이다. 현실 정치의 진퇴를 반복하면서 풍파를 겪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의 심사를 방대한 작품으로 남겼다. 연군 의식은 모든 사대부가 그러하지만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였다고 할 수 있다. 「關東別曲」에서도 자신을 불러준 임금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등장하지만, 특히 그의 작품 중 「思美人曲」과 「續美人曲」은 戀君之情을 여성의 목소리로 임과 이별한 슬픔을 그려 내어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획득하였다.

「思美人曲」과 「續美人曲」에서 美人은 “용모가 단정하고 수려한 여자를 일컬음이요, 다른 하나는 임금을 지칭”⁵³⁾한다. 작품의 화자인 여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작가론적 관점에서 작가가 근본적으로 그리워하는 대상인 님, 즉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옛적에 屈原은 임금에게 충성과 지혜를 다하다가 참소를 만나 방축되어 「離騷」란 글을 지었다. 후인이 그 충성을 애처롭게 여기고 그 뜻을 측은해 하며, 또 그 재주를 아깝게 생각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하여 천백 년 동안을 문단의 우두머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 松江 공의 충성과 재주가 옛 사람에 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고, 또 그 불행을 만남이 애처롭고 측은한 것도 역시 屈原과 같으니, 그 글 역시 틀림없이 후세에 진하여서 애석히 여겨질 것이 「離騷」와 같음은 조금도 의심할 나위가 없다.”⁵⁴⁾

두 작품이 후대에도 널리 사랑받은 이유는 임금에게 진언하고자 하는 뜻을 대

53) 박춘우, 『한국 이별시가의 전통』, 역락, 2004, p.307.

54) 김상헌, 「松江集跋」, 『松江集』 권2, “昔屈左徒盡忠竭智 遭讒放逐 著離騷之文 後人哀其忠 愍其志 惜其才 傳至今千百祀 爲文苑冠首 今公之忠與才 比古人無愧 而所遭之不幸 可哀可愍 又如此 其文之必傳後 愛惜如離騷者 無疑復.”(김진희, 앞의 책, 2016. pp.95-96 풀이 인용.)

중성이 높은 문학 주제인 연정으로 치환해 대중의 사랑과 유교적인 가치를 동시에 작품에서 실현한 것에 있다. 이는 당대와 후대에 조선의 離騷라 불리며 사대부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인정받는 배경이 되었다.

박춘우는 “연군계 가사는 여성 화자의 시각으로 임(임금)을 노래한 것으로 조선조의 지배 이념인 유교사상과 연관이 있다. 유교의 도덕은 통치자를 위한 윤리로, 피지배자가 지배자에게 굴복하는 것을 요구하며 신분적 사회 질서를 중시한다. 그러므로 열녀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는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으로 연결되며, 이때 부부 관계는 자연스럽게 군신 관계로 대치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남녀의 사랑은 그 주제의 성격상 자연스럽게 이른바 연군충신지사로 전용되어 사대부들에게 수용·향유되었을 것”⁵⁵⁾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松江의 「思美人曲」과 「續美人曲」이 戀君之情이라는 당대의 특수성과 연정이라는 문학적 보편성을 모두 내포했다고 할 수 있겠다. 松江歌辭의 문학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살펴봄에 있어서 연군 의식은 중요하다. 두 작품 모두 문학적 상상력을 더한 서정 양식이지만 안에 내포한 역사적 사실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思美人曲」은 松江이 선조 18년(1585년)에 사헌부 사간원의 논책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昌平에 4년간 머물러 있는 시기에 창작한 작품이다.

울 적의 비슨 머리 얼키언 디 삼삼年년이라.

臙연脂지 粉분 잇니마는 놀 위흐야 고이 호고. (思美人曲)

“울 적의 비슨 머리 얼키언 디 삼삼年년”이라는 표현에서 「思美人曲」이 1588년경에 창작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적 표현은 화자와 작가의 연결성을 높여 작가인 松江의 戀君之情을 더욱 주제로 강화하는 효과를 보인다.

엇그제 님을 피셔 廣광寒한殿던의 올낫더니

그 더디 엇디흐야 下하界계에 느려오니. (思美人曲)

55) 박춘우, 앞의 책, 2004, p.332.

天浬上尙 白帛玉옥京京을 엇디호야 離니別별호고
 히 다 더 저른 날의 늘을 보라 가시논고. (續美人曲)

「思美人曲」과 「續美人曲」은 임금과 정치를 논하는 한양과 자신이 隱居하는 昌
 平을 천상과 지상의 이원적 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화자가 그리워하는 님과 화
 자는 과거에 천상에서 함께 했으나, 현재는 화자 홀로 하계에 내려와 있다. 이러
 한 심리적 거리를 시각화하는 것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自然景物이다. 천상은 늘
 변하지 않는 관념화된 세계라면, 지상은 사시사철이 변화하고 그에 따른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공간이다. 화자는 이러한 변화로 느껴지는 자신의 감정을 역동
 적이고 비극적으로 그리고 있다.

천상에서 살던 존재가 자신의 죄로 지상에 유배를 오는 ‘적강 모티프’는 화자
 와 대상의 이별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한다. 두 미인곡은 모두 ‘적강-천상에서의
 유배-지상에서의 고난 - 천상으로의 복귀 소망’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모
 두 결사에서 사랑하는 님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으로 귀결된다.

「思美人曲」은 ‘서사 - 본사(춘원 - 하원 - 추원 - 동원)-결사’의 형식으로 이루어
 져 있다. 「思美人曲」의 구조와 주제를 정리하면 아래 [표 IV-1]과 같다.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님을 그리워하며 바라보는 대상과 그에 대한 감회를 노래한다.

[표 IV-1] 「思美人曲」의 구성

서사	과거에 사랑하는 이와 갑작스럽게 이별한 슬픔	
본사	춘원	님에게 창밖의 매화를 보내고 싶은 마음. 달을 보고 님을 만난 듯 감회에 젖어 그리워함.
	하원	이별의 고독과 님에게 옷을 지어 보내고 싶으나 여정이 험하여 할 수 없음에 좌절하는 슬픔.
	추원	달과 별을 보며 반가움과 슬픈 마음에 님을 생각함. 청광을 님에게 보내고 싶어 함.
	동원	님에게 양춘을 부치고 싶은 정성과 겨울밤에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결사	끝없는 이별에 좌절함. 다른 존재가 되어 님에 곁에 가고 싶은 열망.	

“『思美人曲』에는 사계의 순환 구조가, 『續美人曲』에는 ‘낮, 밤’의 순환 구조가 쓰이는데, 양 편 모두 이에 앞선 서사에서 더욱 결정적인 시간이 제시된다. 그것은 님과 헤어진 과거의 시간이 제시된다.”⁵⁶⁾ 사계절과 밤과 낮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자연의 순리와 달리 화자가 겪는 인간의 삶은 순리에 역행해 있다.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염원으로 화자의 시간이 서술된다.

東東風풍이 건 듯 부러 積積雪설을 헤터 내니
 窓창 맞고 심근 梅梅花화 두세 가지 피어세라.
 갓득 冷冷淡淡담흔디 暗暗香향은 뜨스 일고.
 黃黃昏昏의 들이 조차 벼마터 빗최니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梅梅花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思美人曲)

『思美人曲』의 춘원에서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시기에 매화가 피어난다. 매화는 개화의 특징을 君子에 비유하여 연군을 뜻하는 사군자로 널리 활용된다. 매화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님을 한 방향으로 바라보는 현재의 모습과 고된 환경에 처해 있는 처지를 드러낸다.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와 같이 景物을 인격을 가진 대화의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다. 외부 환경으로 인해 어려워진 자신의 현실을 자연을 통해 극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꽃 디고 새 님 나니 綠綠陰陰이 질렀는디
 羅羅帷帷 위 寂寂寞寞하고 繡繡幕幕이 뷔여 있다. (思美人曲)

하원에서는 녹음이 짙은 여름의 풍경을 묘사한다. 새 잎이 돋아나는 것은 만물의 생동적인 모습을 표현한다. 그러나 자신의 주변은 적막하다. 생명이 활동하는 山水의 풍경을 즐기지 못할 만큼 외로움과 그리움의 정서가 커졌음을 대조적으

56) 김진희, 『송강가사의 시간성과 극적 구조』, 『고전문학연구』 제46권, 한국고전문학회, 2014, p.27.

로 보여 주고 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山水와 격리된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인해 山水間에 자리했음에도 이 충만함이 자신의 공허한 정서와 시름을 더욱 깊게 함을 드러내고 있다.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바라보니
山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千천리리 萬만리리 길홀 뉘라셔 츠자갈고. (思美人曲)

적극적으로 戀君之情을 실현하기 위해 실행할 의사가 있으나 물리적 거리감과 현실적 문제를 표현하고 있다. “山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는 山水와 화자가 대립적 관계에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부분이다. 산과 구름은 모두 높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천상의 님과의 격리가 물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續美人曲」에서도 사계절을 노래하는 「思美人曲」과 마찬가지로 山水景物은 화자가 님에게 닿는 염원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잡거니 밀거니 뉘픈 궤히 올라가니
구름은쿠니와 안개는 므스일고.
山산川천이 어둡거니 日日月월을 엇디 보며
咫지尺척을 모르거든 千천리리를 바라보랴.
출하리 물그의 가 비길히나 보자 하니 (續美人曲)

자신의 공간에서 님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애타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름과 안개는 자신 주변의 환경인 “山산川천”을 어둡게 만드는 동시에 앞에서도 “日日月월”로 비유된 님을 볼 수 없게 만든다.

브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더이고
샤공은 어디 가고 뵈 빈 빙만 걸렸느니.
江강天텨의 혼자 서셔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消消息식이 더욱 아득흔더이고. (續美人曲)

“뉘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더이고”에서는 강이라는 大自然이 이미 자신과 님을 가로막음에 더해 바람과 물결이 소식마저 알 수 없도록 더욱 극한의 환경을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山水景物과 자신의 처지를 대립적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자신과 척을 진 山水景物이 능동적으로 자신을 가로막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는 구름과 안개의 부정적 특징을 실제 현실에서 자신을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입했다고 볼 수 있다.

흐르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러 넬 제
危위樓루에 혼자 올라 水슈晶정簾님 거든말이
東동山산의 둘이 나고 北북極극의 별이 뵈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思美人曲)

「思美人曲」의 추원에서는 “기러기 우러 넬 제”라는 구절을 통해 쓸쓸한 가을의 계절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운다는 동음이의를 활용하여 “눈물이 절로” 나는 자신의 슬픔을 강화하고 있다. “東동山산의 둘”과 “北북極극의 별”은 지상의 화자와 님의 거리감을 나타낸다. 그러나 밝은 빛을 내는 景物의 특징을 통해 님을 긍정하는 어휘로 활용하며, 님이 절대적인 존재임을 말해 준다.

淸淸光광을 쥐여 내여 鳳봉凰황樓누의 붓티고져.
樓누 우히 거러 두고 八팔荒황의 다 비최여
深심山산 窮궁谷곡 점낫ㄱ티 밍그쇼셔. (思美人曲)

그리고 화자는 님이 이런 특징을 활용하여 “淸淸光광”으로 “深심山산 窮궁谷곡 점낫ㄱ티” 만들기를 기원하고 있다. 비록 이별의 정한은 슬프나 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乾건坤곤이 閉폐塞식하야 白빅雪설이 흰 빗친 제
사름은크니와 늘새도 곱쳐 있다.
瀟쇼湘상南남畔반도 치오미 이러커든
玉옥樓누 高고處처야 더욱 닐너 므습흐리.
陽양春춘을 부쳐 내여 님 거신 디 쏘이고저. (思美人曲)

본사의 동원에서는 “白빅雪설”로 춘원의 “積적雪설”과 같은 환경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다림에 지친 외로움의 정서를 “사름은크니와 늘새도 곱쳐 있다.”로 나타낸다. 나는 새라는 景物이 활동하지 않는 극한의 환경임을 증명하여 추위, 즉 고된 처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처지에도 자신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陽양春춘”마저 님을 생각하여 보내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직설적으로 보여준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곶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니다가
향 므든 놀애로 님의 오시 올므리라. (思美人曲)

그러나 춘하추동이 지나가도록 님의 부름으로 자신이 다시 원상 복귀되고자 하는 염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연군의 정서가 심화되어 마지막에는 죽음의 정서로 표출된다. 하지만 죽어서도 어디든 자유로이 날아갈 수 있는 “범나비”가 되어 戀君之情을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결사라고 하겠다.

출하리 식어디여 落낙月월이나 되야이서
님 거신 窓창 안해 번드시 비취리라. (續美人曲)

「續美人曲」의 결사 부분은 「思美人曲」과 마찬가지로 大自然의 순리를 벗어나는 죽음만이 님과 만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理致를 벗어나서라도 님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순리를 거스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극한의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落낙月월”이 되어서 님을 비추겠다는 님을 향한 마음도 변함이 없다.

“<사미인곡>의 이와 같은 연군의 표출은 현실의 부정적 상황에 대한 호전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적인 기대를 표출하는 방식은 보다 교묘히 이루어지는데, 현실적인 기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고 현실적인 불만을 연군의 정서에 실어 드러냄으로써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황에서 부정적 현실 인식은 연군의 정서와 상보적 관계를 지니고 서로 교합하게 된다. 즉, 부정적 현실 인식은 연군의 정서에 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표출됨으로써, 현실에 대한 기대를 보다 교묘히 드러낼 수 있게 된다.”⁵⁷⁾

죽음도 불사하며 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는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변하지 않는 의지를 드러낸다. 불행한 자신의 처지에도 님을 향한 마음은 불변하며 오히려 자신의 불행한 상황이 더욱 더 의지의 굳음을 강조하는 조화를 이룬다고 하겠다.

2. 극적 구성의 구조적 설득

「思美人曲」은 버려진 여인이 자신을 떠난 임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감정을 담고 있는 독백체이다. 반면 「續美人曲」은 「思美人曲」의 속편으로 이루어지지 않은戀君之情을 더욱 심화하여 다하지 못한 정회를 대화체로 하소연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松江歌辭는 기본적으로 시적 화자의 독백에 의해 대부분의 진술이 이루어지는 서정 양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현되는 갈등은 인물과 인물간의 외적 갈등이라기보다는 시적 화자의 내면적 갈등”⁵⁸⁾이다. 이 내면의 갈등을 「思美人曲」과 「續美人曲」에서 전개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를 극 양식의 구조와 대입하여 비교하면 두 작품의 연계성과 각 작품의 특성을 상세히 알 수 있다.⁵⁹⁾

57) 이승남, 앞의 책, 2003, p.103.

58) 김진희, 앞의 논문, 2014, pp.7-8.

59) 김진희는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서 파토스의 개념을 인용하여 미인곡의 정서를 극 장르에 비교하여 해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참조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김진희, 위의

김학성은 이러한 극적 구조를 “鄭澈이라는 구체적인 작가가 선조 임금이라는 구체적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절실하게 하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온전한 서정 양식이 아닌 의사 서정 양식으로 간주함으로써 서정적 양식의 독자(청자)의 존재를 중요시하였다. 이는, 절제된 감흥의 영받은 시인 자신의 비밀스런 은밀한 목소리로써가 아니라, 반드시 수용자층과 공감적으로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시적 태도를 아울러 지니고 있는 사대부의 시학적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작품을 하나의 텍스트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의 창작과 수용자를 함께 염두에 두는”⁶⁰⁾ 것이다.

“「思美人曲」이 여성적 화자의 독백체임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화자를 앞세운 작자 자신의 내면 토로일 뿐 어떤 독자도 상정하지 않는 것이다. 「思美人曲」의 제일의적 독자는 작자인 정철 자신이다. 실제로 「思美人曲」은 「續美人曲」처럼 다른 작중 인물에게 말을 걸지도 않고, 「關東別曲」의 화자처럼 몽중선인과 대화하지도 않는다. 그저 홀로 버려진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 주변의 景物과 거기서 느끼는 소회를 노래하고 있을 뿐이다. 계절이 바뀌고 낮과 밤이 교차하고 때로 산과 강을 거닐고 있지만 서정적 자아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 노래를 들어줄 이는 송강 자신 이외에 아무도 없는 것이다. (중략)

독백도 그것이 어떤 대상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관계된 것이라면, 독백 속에는 필연적으로 그 유일한 대상이 자신의 노래를 들어주길 바라는 강렬한 소망이 담겨 있는 법이다.”⁶¹⁾

박경남은 「思美人曲」의 독백체 형식이 독자를 상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思美人曲」은 대체적으로 독백적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간간이 청자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물론 이는 연군가사로서의 「思美人曲」이 자신의 사랑 고백을 들어줄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⁶²⁾인 것이다. 이를 극 양식으로 치환해 보면 「思美人曲」의 화자가 하는 이야기는 ‘독백’이 아닌

논문, 2014 참조.)

60) 김학성, 『국문학 탐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7, p.138-150. (이승남, 앞의 책, 2003, p.171 재 인용 참조.)

61) 박경남, 「「思美人曲」의 향유 맥락과 중층구조」, 『규장각』 2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1, p.28.

62) 박경남, 위의 책, 2011, p.28.

듣고 있는 대상이 암묵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방백’에 가깝다고 보인다.

「續美人曲」은 ‘갑녀 사설-을녀 사설-갑녀 사설-을녀 사설-갑녀 사설’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표로 구성하면 [표 IV-2]와 같다.

[표 IV-2] 「續美人曲」의 구성

서사	갑녀	을녀의 하강에 대해 갑녀가 질문함.
	을녀	님과 사랑했던 과거에 대한 회상과 이별의 서러움.
	갑녀	을녀를 위로.
본사	을녀	님에 대한 걱정.
		님 소식을 알고 싶어 헤매지만 알 수 없음.
		꿈에 님을 만나지만 깨어나고 허무해함.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어 님에게 가고자 하는 열망.
결사	갑녀	을녀에게 조언함.

갑녀와 을녀가 우연히 만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을녀의 안타까운 처지와 마음을 갑녀가 청자로서 들어주는 동시에 그 감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思美人曲>의 독백체에 비해 <續美人曲>의 대화체는 더욱 극적인 입체감을 지니고 있다.”⁶³⁾ 自然景物을 의인화하여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실제 대화 상대와 담화를 주고받음으로써 감정을 극대화한다.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헛더이고.

天塹上上 白碧玉옥京경을 엇디흐야 離니別별호고

히 다 더 저믄 날의 눈을 보라 가시논고.

히 다 더 저믄 날의 눈을 보라 가시논고. (續美人曲)

「思美人曲」에서 하계를 지칭함으로써 하늘과 지상을 구분했다면, 「續美人曲」에

63) 이상보, 『한국가사문학의 연구』, 형설출판사, 1974, p.285.(이승남, 앞의 책, 2003, p.108 재인용.)

서는 천상과 이별하여 자신이 님과 멀어졌음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모습을 주인공인 화자가 먼저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화자, 이 이야기 속의 청자인 갑녀가 먼저 발견한다. 그제야 당사자인 을녀가 자신의 사설을 설명한다.

어와 네여이고 내 스설 드러 보오. (續美人曲)

이는 자신의 상황을 들어줄 대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게 된다. 갑녀와 을녀 두 여성 화자는 각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작가의 내면의식을 두 방면에서 표출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서정 양식의 특징인 시적 화자의 내면적 갈등의 표출을 극적 구조를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즉 혼가마는
엇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너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러야 교턱야 어즈러이 구똥편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누어 싱각하고 니러 안자 헤여흐니
내 몸의 지은 죄 피긋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흐며 사롭이라 허물흐라. (續美人曲)

을녀는 갑녀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님과 이별한 이유, 즉 갈등의 원인을 언급한다. 대화의 형식은 구체적 상황을 드러내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야 교턱야 어즈러이 구똥편디”라고 자신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부재의 원인을 님이 아닌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 피력하고 있다.

글란 싱각 마오.

미친 일이 이서이다. (續美人曲)

자신의 죄를 탓하는 원인 분석에 대해서 갑녀는 “글란 싱각 마오.”라고 위로한

다. 이로써 비록 자신이 님에 대한 잘못을 탓하고 있지만, 제3자의 시점에서 죄가 없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주고 대변해 주는 대화에 을녀는 “미친 일이 이셔이다.”라며 그동안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는다.

春춘寒한苦고熱열은 누라서 피섯는고.
粥죽부조飯반 朝초夕석 피 네와 갖티 세시는가. (續美人曲)

을녀의 하소연 역시 님에 대한 애뜻한 마음이다. 옆에서 자신처럼 살뜰히 보살피는 존재가 없다는 걱정을 함으로써 님에 대한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에 맺힌 것이 오로지 님을 향한 마음임을 역설하면서 님과 심리적 거리가 늘 가까이 있음을 표현한다.

님다히 消소息식을 아므려나 아자 흐니
오늘도 거의로다 니일이나 사롬 올가.
내 므음 둘 더 업다 어드러로 가쟈 말고.
잡거니 밀거니 뉘픈 뉘희 올라가니
구름은쿠니와 안개는 므스일고. (續美人曲)

이 심리적 거리를 물리적 거리로도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계속한다. “님다히 消소息식”을 알기 위해 “뉘픈 뉘희”에 오르지만 구름과 안개가 자신을 가로막는다. 또한 배를 타기 위해 노력하지만 바람과 물결이 앞을 가로막는다.

「續美人曲」 본사에서는 「思美人曲」처럼 방백을 하듯이 자신이 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자연, 꿈, 죽음을 통해 비유하고 있다. 이러한 반복과 점층적 구조는 점차 더욱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一片丹心の 내적 의지를 다지는 역할을 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더 족족 안니다가
향 므든 놀애로 님의 오시 울므리라. (思美人曲)

출하리 식여디여 落낙月월이나 되야이서

님 겨신 窓창 안해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돌이야크니와 古준비나 되쇼셔. (續美人曲)

그러나 「續美人曲」은 마지막 구절에서 「思美人曲」과 흐름을 달리한다. 달이라는 긍정적 景物의 특징으로 님을 향한 一片丹心을 표현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 사설을 듣는 청자 입장의 감녀가 을녀의 모든 사설을 들은 다음에 제시한 방법은 “구준비”이다. 비 자체의 성질도 부정적이나 더욱 상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정적인 山水景物을 닦고자 하는 특이한 결말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부정적 山水景物을 활용하여 역설적으로 자신의 一片丹心을 노래한 것이다.

「續美人曲」은 자신의 상황을 추상적으로 묘사하는 방백의 「思美人曲」과 다르게 현실적인 대화로 진행됨에 따라 더욱 소박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작품에 드러낸다. 이는 남녀의 정과 믿음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듯이,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서 忠臣戀主도 어느 누구나 마땅히 지켜야 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鄭澈 문학에 있어서 경국제민의 발로라는 이러한 일반적인 연군 의식이 그의 문학적 특성이 될 수 있는 점은 그 투철함에 있다.”⁶⁴⁾ 「續美人曲」은 戀君之情이라는 문학적 특수성을 극적 구성과 대화 형식의 자연스러운 언어를 통해 문학적 보편성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하여 더욱 뛰어난 문학성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3. 심미적 체험과 교훈적 가치

인간의 삶은 백 년 전에도 천 년 전에도 자신이 꿈꾸는 희망과 현실 세계 사이의 간극에서 갈등이 시작된다. 우리는 모두가 이런 간극을 좁히고 갈등을 해결해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다.

64) 김진욱, 앞의 논문, 2003, p142.

작가의 미의식, 즉 화자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에 작품 속에서 찾아낸다면 유의미한 감상이 될 것이다.⁶⁵⁾ “문학 감상의 본질이 결국에는 문학 작품 속에 형상화된 공간의 아우라를 체험하는 일”⁶⁶⁾이다. 우리가 문학 작품 그대로를 감상하는 것 외에도 문학적 배경과 작가의 사회적 배경을 파악하는 이유는 문학의 공간을 오롯이 체험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關東別曲』은 松江 鄭澈이 지었다. 관동 지방 자연의 아름다움을 낱낱이 들고, 그윽하고 험곡한 경치를 남김없이 말하였으니, 형상의 묘함과 조어의 기이함이 진실로 악보의 절조이다.”⁶⁷⁾

洪萬宗은 『旬五志』에서 松江歌辭의 특징으로 “형상의 묘함과 조어의 기이함”을 들며, 松江歌辭의 文藝美와 그 속에 드러난 自然美를 기이하고 절묘하다고 표현하였다.

현재에도 관동 지방의 풍경은 존재하지만, 그 당시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작가가 바라본 관점을 현실에서 볼 수는 없다. 타인의 감상 ‘평’으로도 완전히 이해는 불가능하다. 다만 문학 작품에 남아 있는 미적 감각을 문학적 상상이라는 여백을 독자 스스로 채워가며 감상하는 것이다. 松江歌辭는 그러한 점에서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하는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松江歌辭는 이념과 현실간의 괴리를 극복하고자 작품을 창작하였고, 그의 가사 작품들은 유배라는 극단적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발로였다. 이것은 “상상력의 윤리적 가능성”⁶⁸⁾이 발휘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松江이 시대를 슬퍼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을 우리말 노래에 붙인 것이 『離騷』의 충분(忠憤)과 같은 점이 있었으므로, 그의 장가(長歌)나 단요(短謠)가 지금까지 많이 불리고 있다.”⁶⁹⁾

65) 孫五圭, 「歌辭의 문학교과지도 視點 - 賞春曲, 思美人曲, 愚夫歌를 중심으로-」, 『백록어문』 제 15호, 1999, p.133 참조.

66) 엄은열, 『고전문학의 교육적 발견』, 도서출판 역락, 2007, p.63.

67) 洪萬宗, 『旬五志』, “關東別曲 松江鄭澈所製 而歷學關東 山水之美 說盡幽遐詭怪之觀 狀物之妙 造語之奇 信樂譜之絕調也.”(국립중앙도서관본 영인본, 대제각, 1995, p.385, 김진희, 앞의 책, 2016. p.74. 풀이 인용.)

68) 고정희, 『고전시가와 문체의 시학 - 윤선도와 정철의 경우』, 도서출판 월인, 2004, p.198.

조선시대 제일의 독서가로 손꼽히는 李德懋는 松江歌辭를 松江이 시대를 슬퍼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 즉 憂國之情을 그대로 우리말로 옮긴 것이라고 평하였다. 이것이 “중국의 「離騷」의 忠憤”과 같은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에 松江歌辭가 널리 사랑받는다고 하였다.

江頭誰唱美人辭 강변에서 그 누가 미인곡을 부르르고,
 正是孤舟月落時 외로운 뱃머리에 달빛이 희미한데
 癡癡戀君無限意 님 그려 애끓는 정은
 世間唯有女郎知 오직 아낙네들이 아는 건가.⁷⁰⁾

“연정은 인간의 삶 속에서 보편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상황으로,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규범을 실천적 윤리로 삼던 조선조의 새로운 유교 통치권 아래에서도 문학을 통해 구현되었다.”⁷¹⁾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은 오늘날에도 보편적 가치로 이어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戀君之情을 추측하게 되는 비계가 되어준다. 이런 가치가 松江 작품의 미의식으로 발현되어 「思美人曲」과 「續美人曲」은 연정가사로 또 연군가사로 오랜 세월 대중의 인정을 받았다.

또한 李安訥은 강변에서 어떤 여인이 松江歌辭를 노래하는 것을 듣고 시를 지었다. 연군은 아낙네들만 아는 것인지를 반문하며, 애정가사로 향유되는 松江歌辭가 지닌 戀君之情이라는 가치를 세월이 지났음에도 다시 부각하고 있다.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결과, 이것이 통시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松江歌辭의 향유 가치를 발휘한다.

“松江歌辭의 조선시대라는 배경과 연주(戀主)라는 내용, 그리고 당대의 문화적 의미망과 문화사적 의미가 아날로그 세대에게는 역사에 대한 회억과 추억의 반추로 동질성을 강화시켜 주며, 디지털 세대에게는 사랑이라는 만인의 공통 주제에 대

69) 李德懋, 「松江墓」, 「清脾錄」一, 『靑莊館全書』 권32 “松江寓哀時憂國之誠於諺歌 有離騷之忠憤 故長歌短謠 至今藉甚.”(김진희, 앞의 책, 2016, p.102. 풀이 인용.)

70) 李安訥, 「江上聞歌」, 『松江集』(김하명, 『강호에 병이 깊어 죽림에 누웠더니』, 보리, 2005. p.412 풀이 인용.)

71) 박춘우, 앞의 책, 2004, p.330.

한 관심과 흥미 나아가 교육이라는 관심거리를 제공해 주는 등 언제나 당대적 문화조류를 선도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음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⁷²⁾

최한선은 松江歌辭의 가치를 세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아날로그 세대에게는 공동체의 역사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디지털 세대에게는 인간 공통의 주제이자 가치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대를 나누지 않아도 松江歌辭가 흥미로운 감상 작품이자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할 수 있다.

古典文學 교육은 고전의 가치를 이해하고 습득함으로써 인생을 이해하고, 인간성을 도야하며, 미의식을 함양하는 등 보다 고차원적인 인간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작품에 관한 객관적 지식의 학습과 함께 작품에 대한 심미적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⁷³⁾고 하였다. 문학이라는 예술의 아름다움에 대한 공감과 예술 향유의 즐거움 내지 追體驗의 영역을 확대하여 현재적 삶의 감성적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松江歌辭를 위시한 문학 작품은 각 시대마다 개별적이고도 특수한 환경에 놓인 작자의 현실 대응방식이자 그 언어적 형상화의 산물이다.”⁷⁴⁾ 그래서 우리는 당시 松江이 어떤 배경 아래서 작품을 창작했고, 그 창작의 결과물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현대적 관점에서 시대상을 고려하여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가 문학을 감상하고 문학교육을 하는 이유는 어떤 환경에 놓인 타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이다. “문학교육에서 강조하는 타자에 대한 이해가 결국에는 타자가 놓여 있는 역사적이고 특수한 공간에 대한 체험의 양상이 되어야 한다.”⁷⁵⁾ 우리는 다양한 역사적 시간에 놓인 타자를 문학 작품을 통해 간접 체험하면서 타자에 대한 이해와 우리 자신에 대한 고찰의 폭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72) 최한선, 「송강가사의 문화 콘텐츠화 방향」, 『고시가연구』 33집, 2013, p.394.(김은희, 앞의 논문, 2016, p.75 재인용.)

73) 이승남, 「고전시가의 문학교육적 접근」, 『동악어문논집』 제32집, 동악어문학회, 1997.(박인기 외, 『문학을 통한 교육』, 삼지원, 2005, pp.84-90. 재인용)

74) 박영주, 앞의 논문, 2016, p.123.

75) 엄은열, 앞의 책, 2007, p.63.

V. 산수문학적 성격과 교훈성의 교육적 적용

1. 다양한 가치의 이해를 위한 교수·학습 방안

문학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문학이 발현하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심미적 경험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인문적 가치를 교육적 경험을 매개하여 내면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문학교육에서 교육 내용은 대부분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다.

가치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판단과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 정당화하는 기준이 된다. 눈으로 직접 가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에서 가치를 추론한다. 이때 언어와 행동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즉, 사람의 언어와 행동은 그들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그 안에 등장하는 갈등에 따라 반영된 언어와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가치를 추론하고 이해하는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형상화된 문학 세계를 상상하고, 해석하고, 가치화하고, 반성하고, 실천하며 교육적 가치를 체득한다. 이때 학습자는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이를 자신의 삶에 반영함으로써 가치를 내면화한다.

미국의 철학자 찰스 모리스(Charles William Morris)는 “한 사회가 지배적이고 보편화된 가치들을 중심으로 통합되지 못하면 개인 스스로가 통합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가를, 어떤 사회형태의 구성원이 되기를 바라는가를 스스로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⁷⁶⁾고 이야기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다양한 간접 경험을 통해 스스로 어떤 가치를 통합하여 자신만의 중심을 형성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하나의 사상이 사회의 중심이 되는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76) 남궁달화, 『가치탐구 교육론』, 철학과현실사, 1998, p.131 재인용.

의 학습자가 古典文學 창작 당시의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문학 작품에 내재된 가치를 발견하고 분석하고 재해석하며 평가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를 명료화 해야 한다. 그리하여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확립하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를 재인식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松江歌辭 작품에 바탕이 된 당대 가치관을 작품 속에서 발견하고, 이를 현대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는 학습을 위해 ‘가치 탐구 학습’ 이론을 활용하여 지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가치 탐구 학습의 이론적 배경

가치 탐구는 인간 가치를 탐구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이다. 가치 탐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자아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시몬즈(Dale Simmons)는 “가치는 우리에게 ‘좋은 삶’을 규정해 주는 신념”이라고 보았다. 한 사람의 반응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단의 조직적 운영을 통해 자아확인하고자 하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집단 구성원들은 그 가치들과 가치 체계를 검토하고 재구성하여 자신의 가치관을 수립 또는 정립하는 기회를 가진다.⁷⁷⁾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한 ‘가치 탐구 학습’은 가치를 주입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나름대로 가치를 재구성함으로써 스스로 가치를 성립하는 학습법이다. 문학 감상을 하는 학생들이 텍스트 안의 세계와 외적 세계(현재 자신의 세계)를 분석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의 사고를 더욱 심화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가치 탐구 학습 모형은 학습자가 언어에 내재된 가치를 탐구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이해심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 주는 데 알맞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 탐구 학습은 ‘문제 분석하기-가치 확인하기-가치 평가하기-가치 일반화하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가치 탐구 학습 모형의 절차와 주요 활동은 [표 V-1]과 같다.⁷⁸⁾

77) 남궁달화, 앞의 책, 1998, pp.131-135 참조.

[표 V-1] 가치 탐구 학습 모형

과정	주요 활동
문제 분석하기	- 동기 유발 - 학습 문제 확인 - 문제 상황 분석
가치 확인하기	- 가치 발견 또는 추출 - 발견 또는 추출한 가치의 근거 확인
가치 평가하기	- 가치의 비교 및 평가 - 가치의 선택
가치 일반화하기	- 가치의 적용 - 가치의 재평가

문제 분석하기 단계는 가치를 추출, 발견하기 위한 기초 단계이다. 학습 문제를 확인하고 가치를 포함하는 언어 맥락이나 담화 자료를 분석한다. 이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 내용들이 다음 단계에 기초가 된다. 가치 확인하기 단계는 과제나 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내재된 가치를 확인하고, 그 가치의 근거를 제시된 맥락이나 담화 자료에서 찾는 단계이다. 가치 평가하기 단계는 확인된 가치 하나하나에 대하여 비교, 분석, 비판하고, 나름의 기준을 적용하여 가치를 평가하거나 선택한다. 가치 일반화하기는 분석하고 평가한 가치를 토대로 자신의 가치를 재구성하고, 자신의 언어생활에서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탐구하거나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가치를 일반화하거나 재평가하는 단계이다.

가치 탐구 학습은 다양한 가치의 발견과 이에 대한 비판적 수용에 그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는 이러한 학습 체험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고, 학습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국어과에서 가치를 다루는 목적은 합의된 가치를 이끌어 내거나 내면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가치를 접하고 이를 입증하는 근거와 타

78) 최미숙 외, 앞의 책, 2016, pp.102-103.

당성을 탐구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2) 고전시가 교육에서 가치 탐구 학습 모형의 활용

가치 탐구 학습의 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우경란은 이러한 국어과 가치 탐구 학습 모형을 古典文學에 적용하여, 고전소설 교육에서의 세부적인 절차를 제시하였다. ‘문제 분석하기’ 단계를 ‘가치 발견하기’ 단계로 문학 작품 분석에 특화하여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고전 소설교육에서의 가치 탐구 학습 모형⁷⁹⁾의 절차와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표 V-2] 고전소설 교육에서의 가치 탐구 학습 모형

과정	주요 활동
가치 발견하기	인물의 행위 파악하기
	인물의 가치관 명료화하기
가치 평가하기	가치의 정당성 평가하기
	시대적 상황 고려하여 재평가하기
가치 조직하기	가치 체계 구조화하기
	가치 갈등 해소 방식 파악하기
가치 확장하기	현실에 대입하기
	가치관 확립하기

가치 발견하기 단계에서는 시적 화자 개개인에 집중하여 각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밝혀낸다. 가치 평가하기 단계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 신념이나 소신 등에 기반을 두어 작중 인물이 지향하는 가치들의 옳고 그름을 평가한다. 가치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작품의 가치 갈등을 중심으로 가치를 조직하는 활동을 한다. 마지막으로 가치 확장하기 단계에서는 가치를 평가하고 조직한 내

79) 우경란, 「가치 탐구 학습을 통한 고전 소설 교육방안 연구- <홍길동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48.

용을 바탕으로 작품에서 탐구한 가치들을 자신의 실제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한다.

이 모형은 고전소설에서 등장인물의 갈등 관계를 통해 가치관을 파악하고 있다. 고전산문과 고전시가는 그 형식과 특징이 다르다. 그러나 운문과 산문의 중간 단계로 보는 교술 갈래인 가사문학은 서정성과 서사성으로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전소설에서의 모형을 변형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가사는 화자의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작품의 구조 상 비교적 다른 서정문학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갈등 안에서 화자의 감정도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가 작품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때의 감정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서 그로 인한 삶의 태도, 즉 가치관을 찾아내는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松江歌辭는 화자 내면과 화자의 세계와의 갈등이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활용이 더욱 용이하다.

위의 모형들을 바탕으로 가사 갈래의 특징을 중점으로 하여 가치 탐구 학습 모형의 주요 활동으로 변형하여 제시하였다. 가사문학 교육에서의 가치 탐구 학습의 주요 활동은 아래 [표 V-3]와 같다.

[표 V-3] 가사문학 교육에서의 가치 탐구 학습 모형의 주요 활동

과정	주요 활동
가치 발견하기	화자의 시적 초점 파악하기
	화자의 가치관 명료화하기
가치 평가하기	현재 관점에서 가치의 정당성 평가하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가치 재평가하기
가치 조직하기	중점 가치 정리하기
	가치 갈등의 해소 방식 분석하기
가치 확장하기	현실에 대입하여 평가하기
	가치관 확립하기

‘가치 발견하기-가치 평가하기-가치 조직하기 - 가치 확장하기’의 순서는 우경란의 모형 절차와 동일하나 주요 활동에서 고전시가, 그 중에서도 松江歌辭 작품의 학습에 응용이 가능한 형태로 활동을 재구성하였다. 자세한 절차와 그에 따른 학습 활동 및 활동지 예시는 아래와 같다.

① 가치 발견하기

가치 발견하기 단계는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정치·사회·도덕적으로 정당한가를 평가하기에 앞서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명시한다. 즉, 학습자는 주관적인 판단을 되도록 개입시키지 않고 시적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향하는 가치에 대하여 관찰한 바를 있는 그대로 서술한다. 이렇게 발견한 가치를 그룹화 하여 분류하고 가치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 단계에서는 작품 속 화자의 성격과 정서, 태도 등을 분석하여 화자가 바라보고자 하는 초점과 작품의 전체 내용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작품 속에 드러나는 다양한 가치를 발견하면서 가치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사고하는 계기가 된다. 이때 교사가 가치의 예를 여러 방향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좋다. 그동안 가사 작품의 주제로 단정되었던 한두 가지의 중점 가치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가치를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김도남은 가치를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로 구분하여 예를 제시하였다. [표 V-4]는 김도남이 문학교육에서 가치 교육 시 활용 가능하다고 제시한 가치의 예를 정리한 것이다.⁸⁰⁾

80) 김도남, 「문학 독서에서의 가치 교육 방법」, 『독서연구』 제12호, 한국독서학회, 2004, p.8.

[표 V-4]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의 예

내재적 가치	희망, 반성, 실천, 신면, 최선, 생명존중, 성취, 소질개발, 긍지, 덕, 자아실현, 건진, 자율, 합리성, 진취, 논리력, 판단력, 절제, 청결, 건강, 근면, 성실, 인내, 절약 등	
외재적 가치	대인적 가치	겸손, 신뢰, 존경, 대화, 우정, 협동, 경쟁, 의리, 배려, 사랑, 약속, 믿음 등
	공동체적 가치	예절, 규칙준수, 경애, 상부상조, 협력, 가족애, 화목, 미풍양속, 경로, 친절, 책임, 양보, 조화, 공정, 호, 질서, 정의, 애향, 희생, 균등, 도리, 봉사 등
	민족-국가적 가치	자주, 민주, 국가 발전, 애국애족, 준법, 발전, 국방, 충, 통일 등
	인류적 가치	평화, 지성, 평등, 종교, 사랑, 진실, 이성, 공영, 지혜, 심미, 자연보호 등

내재적 가치는 개인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가치이자 잠재되어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외재적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가치이거나 공동체나 국가 또는 범인류적으로 요구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외재적 가치는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형성된 것이다. 이는 다시 개인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인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 민족-국가적 가치, 인류적 가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치 발견하기 단계에서는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를 골고루 다양하게 예시로 제시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방면에서 작품 안에 드러나는 가치를 발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표V-5]과 같은 학습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표 V-5] '가치 발견하기' 학습 활동

<활동지 1>

1. 작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 ◆ 화자의 상황 : “무슨 일이니?”
- ◆ 화자의 감정 : “지금 너의 기분은 어때?”
- ◆ 화자의 태도 :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2. 작품 속에서 화자의 상황과 감정, 태도를 고려하여 생각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단어로 정의 해봅시다. 원 안에 나열된 단어 중에서 화자에게 알맞다고 생각하는 단어에 체크해 보세요.

희망, 반성, 자연애호, 생명존중, 긍지, 덕, 인내, 겸손,
신뢰, 존경, 대화, 우정, 협동, 경쟁, 의리, 배려, 사랑,
약속, 믿음, 국가 발전, 충, 예절, 규칙준수, 경애, 상부상조,
협력, 가족애, 화목, 미풍양속, 경로, 친절, 책임, 양보, 조화,
공정, 효, 질서, 정의, 희생, 도리, 평화, 지성, 지혜, 심미

3. 이 외에 자신이 화자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있다면 적어 보세요.

② 가치 평가하기

가치 평가하기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주관이 적극적으로 개입될 수 있다. 가치 발견하기 단계에서 찾은 가치를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 신념이나 소신 등을 기반으로 하여 오늘날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작품 속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모듈별 토의를 통해 특정 가치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동료 학습자의 평가를 비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자신과 동료 집단의 평가가 어떠한

점에서 같고, 다른지를 비교하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가치와 그렇지 않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합의할 수 있다. 교사는 이 활동이 토론이 아닌 토의라는 점을 학습자에게 확인시키고, 가치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활동에 정당이나 지침이 없다는 점을 인지시킨다.

현대의 관점에서 가치의 평가가 정리되면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재평가하기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작품의 창작 배경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의 정당성을 다시 평가한다.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치는 앞에서 학습자들이 현대적 관점에서 한 평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음 [표 V-6]은 학습 시 제시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가치 재평가하기’에서 활용 가능한 읽기 자료와 그를 통한 학습 활동이다.

[표 V-6]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가치 재평가하기’ 학습 활동

<활동지 2>

1. 작품의 배경이 된 시대는 언제인가요? 작품과 관련된 상황을 추측해 봅시다.
2. 다음 읽기자료를 읽고, 작가가 작품을 쓰게 된 이유와 작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읽기자료 1]

이투데이, 임필순 기자,
<泉石膏肓(천석고황) 불치병에 걸린 것 같은 자연사랑>, 2015-08-10,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178315>)

[읽기자료 2]

무적핑크, 『조선왕조실록』, 「65. 관동별곡과 술고래」,
네이버웹툰(<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642598&no=68>)

③ 가치 조직하기

가치 조직하기 단계는 개별적인 가치들을 비교·대조하면서 유사한 가치들을 묶고, 대립하는 가치들을 나누는 과정이다. 학습자는 작품에서 드러난 가치를 중심으로 가치를 조직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작품 안에서 시적 화자가 겪는 내면의 갈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시대, 사회적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자는 이러한 작품에서 조직한 가치 체계를 다른 작품, 혹은 실제 인간 삶의 해석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학습자는 다음 과정이라 할 수 있는 문학 작품을 본격적으로 자신의 삶에 연계시키는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松江歌辭에 이를 활용할 때, 「關東別曲」에서는 작품 전반부와 후반부의 화자의 태도를 양분하여 상충하는 가치로 인한 갈등을 파악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星山別曲」과 「續美人曲」에서는 화자와 등장인물 간의 가치 차이를 조명하는 활동을 통해 작품에 드러난 가치와 그 가치의 갈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V-7]은 「關東別曲」의 ‘가치 조직하기’ 학습 활동을 제시한 예이다.

[표 V-7] ‘가치 조직하기’ 학습 활동

<활동지 3>

의 교재를 중심으로 수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과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재	고등학교 <국어Ⅱ> 천재교육(박) pp.255-272.
대단원	6. 문학의 효용
소단원	(3) 관동별곡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 내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여 그 안에서 드러나는 삶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어떻게 가치를 선택하고 내면화하는지 확인해 보는 학습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에서 가치와 가치의 갈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를 현재의 관점에서 사고해 보는 학습은 가치 탐구 학습을 통해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작품 감상 및 이해와 가치 탐구 학습의 단계에 따른 학습 활동을 위해 4차시에 걸친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학생들의 반응과 자유로운 토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1, 2차시는 작품의 전반적인 이해와 ‘가치 발견하기’ 단계를 진행하고, 3, 4차시는 ‘가치 평가하기’, ‘가치 조직하기’, ‘가치 확장하기’ 단계를 수업한다. 작품을 감상하고 반응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치 평가하기와 가치 조직하기 단계는 모듈별 토의 활동으로 함께 진행한다.

이 과정안에서는 가치 확장하기까지 블록 수업을 통해 연계성을 강조하였으나 토의 활동의 시간과 흐름을 고려하여 가치 확장하기 단계를 별도로 수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1) 개관

① 대단원 개관

이 단원은 정서적·심미적 차원에서 문학의 효용을 깨닫고, 다양한 가치의 충돌에서 비롯되는 작품 속의 갈등을 확인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통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주체적인 관점에 근거하여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수용 활동과 가치 있는 경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문학의 효용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② 소단원 개관

문학의 효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 나타난 삶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문학은 그 작품을 읽는 독자에게 심미안을 열어 주고 통찰력과 윤리 의식을 키워 준다. 한편 독자는 고급 독자가 되고자 한다면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 주목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단원 학습 목표

① 대단원 학습 목표

- 문학이 정서적·심미적 차원에서 삶을 고양하는 효용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한다.
-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다.

② 소단원 학습 목표

- 문학의 효용에 대해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작품에 나타나는 삶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자신의 생활 경험을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관련 단원(전 학년과의 관련성)

[중 1-3학년군 문학 (10)] 문학이 인간의 삶에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이해한다.
[문학 (11)]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결과를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내면화한다.
[문학 (13)]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4) 교수·학습 과정안(4차시)

가. 1-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교재		고등학교 <국어Ⅱ> 천재교육(박) pp.255-272.		대상	고등학생
단원명		6. 문학의 효용 (3) 관동별곡		차시	1-2 / 4
대단원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이 정서적·심미적 차원에서 삶을 고양하는 효용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한다. ·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다. 			
수업 모형		직접교수법, 가치 탐구 학습법			
본시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의 효용에 대해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작품에 나타나는 삶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습 과정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교사	학생		
도입	수업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출석 확인을 한다. · 주변 환경 정리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한다. · 주변 환경을 정돈한다. 	교과서	
	전시 학습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시간 학습한 작품 속 가치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모듈별로 나와서 칠판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난 시간에 정리한 교과서 학습 활동을 통해 이전 소단원의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시간 학습한 작품의 가치를 떠올려 본다. - 모듈별로 발표자가 칠판 앞으로 나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의 빈 칸을 채운다. - 지난 시간에 정리한 교과서 학습 활동을 확인해 전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떠올려 본다. 	교과서 P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이 기억나는지 문답하여 떠오르지 않는다면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읽어 보도록 지도한다. - 문답이 끝나면 이전 소단원의 학습 목표를 정리해 주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판에 정리한 부분이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읽는다. 	
	학습 목표 제시 및 학습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시에 다룰 학습 목표를 PPT로 제시하고, 학생들과 함께 읽으며 간단하게 설명한다. • 「관동별곡」을 학습할 방법인 가치 탐구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다. • 학습지를 배포한다. • 4시간에 걸쳐 수업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것임을 예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시 학습 목표를 교사와 함께 읽는다. 학습 목표 설명을 듣고 머릿속에 내용을 그려 본다. • 가치 탐구 학습의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한다. 	교과서 PPT
전 개	소단원 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도입부의 금강산 전체를 조망한 그림을 학생들이 감상하면서 각자 느낀 바를 자유롭게 발표해 보도록 한다. - 지난 시간 과제로 자유롭게 「관동별곡」을 읽어 오도록 한 부분을 상기시키고, 그에 대한 감상도 이야기해 본다. - 사람마다 인상적인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의 그림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 지난 과제로 「관동별곡」을 감상한 학생은 작품과 그림을 이어서 감상평을 짧게라도 이야기해 본다. - 발표한 학생과 다른 인상을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발표한다. 	교과서 PPT 동영상
	배경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동팔경’ 다큐멘터리 영상을 상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동팔경’ 다큐멘터리 영상을 시청하면서 작품에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의 ‘쉽터 : 관동 팔경 둘러보기’를 통해 작품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도록 제시한다. - 관동 지역의 자연 환경과 관광 명소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중 방문해 본 곳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준다. 	<p>묘사되는 산수의 모습을 미리 상상해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의 ‘쉽터 : 관동 팔경 둘러보기’의 사진과 영상을 비교하며 작품의 배경 이해를 활성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여행 경험을 머릿속에 그려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전기 가사문학의 특징을 개괄 강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전기 사대부 가사의 발생을 조선 전반 문학사와 연계하여 설명한다. - 가사문학이 서정적 특징과 서사적 특징이 공존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의해서 지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읽기에서 필요한 배경 지식을 파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학의 흐름에 유의하면서 가사의 특징을 정리한다. - 가사와 다른 고전문학 갈래와의 차이점을 떠올리며 특징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산수문학과 유배, 은거 등 역사 및 배경 지식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된 읽기 자료나 한국사 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활용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강과 산수문학의 관계를 떠올리며 배경 지식을 파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 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에 수록된 「관동별곡」을 자유롭게 감상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본문에서 모르는 부분을 확인하며 「관동별곡」을 감상한다. 		
작품 읽고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시간 과제로 미리 읽어 보도록 하였으나, 학생들이 여유를 갖고 감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 • 본문의 구성과 내용을 정리한다. - 서사 : 화자는 창평에서 은거하던 중, 성은으로 강원도 관찰사가 되어 원주에 부임한다. - 본사(내금강) : 화자는 백천동, 만폭동, 금강대, 진혈대, 개심대, 화룡소, 불정대 등을 돌면서 금강산을 유람하고 있다. - 산수에 대한 표현과 화자의 감상과 태도에 주목하게 한다. - 본사(관동팔경) : 화자는 산영루, 금란굴, 총석정, 삼일포, 의상대, 경포, 강릉, 죽서루, 망양정을 돌면서 동해안의 관동 팔경을 구경하고 있다. - 결사 : 망양정에서 월출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가사로서의 특징에 주의하며 본문의 구성과 내용을 정리해 본다. - 서사 : 춘천, 철원, 회양을 순시하면서 연군지정, 우국지정, 무상감, 선정에 대한 포부를 읊고 있음을 확인한다. - 본사(내금강) : 금강산에서는 관찰사라는 공인의 신분으로 연군과 애민의 유교적 사상이 산수 감상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 산수에 대한 표현과 화자의 감상과 태도에 주목한다. - 본사(관동팔경) : 동해안에서는 자유인으로서의 자아가 염원하는 마음이 흥취의 중심에 흐르고 있음을 확인한다. - 결사 : 화자가 어떻게 	교과 서 PPT
--	---	--	----------------

	<p>구경하고 꿈속에서 신선을 만나는 인연을 갖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학습 활동에 수록된 지도에 따른 화자의 여정을 확인하도록 지도한다. <p>- 학습 활동 / 내용 학습 : 다음 지도는 이 작품의 화자가 지나온 곳을 표시한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작품의 중심 내용과 각 여행지에서 화자가 보고 느낀 것을 정리해 보자.</p>	<p>자신의 갈등을 정리하는지 유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학습 활동에 수록된 지도에 따른 화자의 여정을 함께 확인하고 정리한다. <p>-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화자의 감정과 태도임에 유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치'란 무엇인지에 대해 학생에게 발문하고,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의 예에 대해 설명한다. <p>- 교사가 제시한 가치 용어 이외의 가치도 있음을 인지시킨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치'의 정의에 대해 정리하고, 가치의 예와 종류를 확인한다. 	
가치 발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지1>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준다. <p>- 서사, 본사, 결사에서 나타나는 여정 중에 화자의 표현과 태도가 달라지는 부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지1>을 통해 작품의 상황과 감정, 태도를 파악하도록 한다. <p><활동지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작품 속에서 화자의 상황과 감정, 태도를 고려하여 생각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단어로 정의 해봅시다. 	PPT 활동지 교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가치관을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 개개인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작품의 객관적인 분석을 유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상황과 감정, 태도를 질문을 통해 파악한다. - 작품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가치관을 분석한다. 	
정리	학습 내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를 통해 자신이 생각한 가치관 이외에 다른 다양한 가치관이 있음을 정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를 통해 자신이 생각한 가치관 이외에 다른 다양한 가치관이 있음을 상기한다. 	교과서 PPT
	차시 예고 · 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시간에 수업할 내용에 대해 차시 예고를 하고 수업을 정리한다. - 다음 시간에는 토의를 위한 모둠 학습을 진행할 것을 예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차시 수업 내용을 떠올리며 정리한다. - 다음 시간 토의를 위해 활동지를 정리한다. 	PPT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하고 주변 환경 정리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하고 주변 환경을 정돈한다. 	

나. 3-4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교재	고등학교 <국어Ⅱ> 천재교육(박) pp.255-272.	대상	고등학생
단원명	6. 문학의 효용 (3) 관동별곡	차시	3-4 / 4
대단원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이 정서적·심미적 차원에서 삶을 고양하는 효용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한다. ·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다. 		

수업 모형		가치 탐구 학습법, 토의 교수·학습법		
본시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나타나는 삶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자신의 생활 경험을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 과정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교사	학생	
도입	수업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출석 확인을 한다. · 활동지를 배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한다. · 활동지 및 교과서를 확인한다. 	교과서
	진시 학습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시간 학습한 작품 속 가치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모듈별로 나와서 칠판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난 시간에 정리한 교과서 학습 활동을 통해 이전 소단원의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내용을 떠올리는지 문답하여 떠올리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을 다시 읽어 보도록 지도한다. - 문답이 끝나면 이전 소단원의 학습 목표를 정리해 주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시간 학습한 작품의 가치를 떠올려 본다. - 모듈별로 발표자가 칠판 앞으로 나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의 빈 칸을 채운다. - 지난 시간에 정리한 교과서 학습 활동을 확인해 전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떠올려 본다. - 칠판에 정리한 부분이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을 다시 읽는다. 	교과서 P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시간에 정리한 가치 탐구 학습의 절차를 한 번 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시간에 이어 가치 탐구 학습을 진행하는 	

	학습 목표 제시 및 학습 안내	<p>상기시킨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시에 다룰 학습 목표를 PPT로 제시하고, 학생들과 함께 읽으며 간단하게 설명한다. 	<p>것을 확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시 학습 목표를 교사와 함께 읽는다. 학습 목표 설명을 듣고 머릿속에 내용을 그려 본다. 	교과 서 P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 활동과 토의 방법을 제시한다. - 토의를 위해 4-5명 정도의 모듈을 구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 활동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 	
전 개	가치 평가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시간에 발견한 가치 중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정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작품에서 파악한 가치의 중요도를 확인하도록 한다. - <활동지 2>를 개인별로 확인하고 정리할 시간을 준다. - 이유는 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유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찾은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과 그 이유를 활동지를 통해 정리한다. <p><활동지 2></p> <p>1. 지난 시간에 개별 활동을 통해 파악한 가치 중 중요도 순서를 정하고, 가장 중요한 3가지에 대한 이유를 적어 보세요.</p>	교과 서 활동 지 P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별로 중요 가치와 옳지 않은 가치를 협의하는 토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그 이유를 모듈원들이 이야기하고 가장 많은 의견이 모아진 가치의 이유들을 수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를 통해 모듈별로 오늘날에 기준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합의한다. - 자신이 생각한 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별로 토의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듬의 의견 중 가장 많이 동의한 가치를 정리해 발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읽기자료 1, 2>를 읽도록 하고,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p>- 조선시대에 대한 다양한 배경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읽기자료 1, 2>를 읽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듬을 다시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관동별곡」 외에 「성산별곡」, 「속미인곡」, 「사미인곡」에 관한 간략한 자료를 배포하고, 이에 대해 모듬별로 조사하도록 한다. <p>- 송강가사 중 다른 작품을 함께 감상함으로써 당시 시대상과 작가의 사상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듬별로 정해진 작품의 자료를 <읽기자료>와 연관해서 시대적 배경을 정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듬별로 정리한 정보들을 토대로 중요한 가치를 다시 토의하도록 지도한다. 앞선 토의에서 정리한 부분과 차이점에 주의하도록 안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의를 통해 모듬별로 오늘날 기준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당대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옳다고 여겨지는 가치를 이야기한다. 	
가치 조직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와 당대 시대상을 고려한 가치를 중점으로, 다시 작품을 읽도록 유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감정을 작품 안에서 재확인한다. 	교과 서 PPT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 속에서 시적 화자의 내면 갈등을 파악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적 화자의 마음속에서 충돌하는 다른 가치관을 파악한다. 	지 교과 서 PP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록1>의 작품 풀이 만화를 나누어준다. - <부록>을 활용하여 <활동지 3>을 모둠별로 해결하도록 한다. - 가치로 인한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둠 활동 중에 확인하며 지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록1>을 재구성하여 <활동지3>을 해결한다. <p><활동지 3></p> <p>1. 모둠별 토의와 활동지를 통해 정리한 가치를 다시 작품 속에서 찾아봅시다.</p> <p>나누어 준 <부록> 만화의 내용에서 자신이 「관동별곡」에서 찾은 가치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오려서 활동지에 배치해 봅시다. 그리고 그 가치가 작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의하여 정리한 부분을 「성산별곡」, 「속미인곡」, 「사미인곡」 모둠별로 발표하도록 한다. - 이때 보조 자료로 받은 모둠별로 발표한 기준에 차이가 있다면 확인, 정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하여 정리한 부분을 모둠별 대표 학생이 발표한다. - 다른 모둠과 우리 모둠이 정리한 부분의 차이점에 유의하며 발표를 경청한다. 	
가치 확장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서 파악한 가치 중에서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가치가 있는지 질문한다. - <활동지4>를 해결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 활동을 통해 파악한 가치 중 자신이 내면화할 수 있는 가치를 선정한다. - <활동지4>에서 자신이 	PPT 활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4>의 작품 선정의 예시로 들 때, 현대 작품뿐만 아니라 송강가사 중에 한 작품을 예로 들어봄으로써 위에서 정리한 가치를 한 번 더 확인시켜준다. - 대중매체 활용도 적극 권장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모둠원들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p>내면화하고 싶은 가치에 대해 표현해 본다.</p> <p><활동지4></p> <p>1. 학습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정철에게 「관동별곡」처럼 자신의 가치를 가장 잘 담고 있다고 생각되는 노래나 시를 찾아봅시다. 왜 그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지 이유도 함께 적어보세요.</p>	
정리	학습 내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반영되거나 독자가 투영해서 보는 다양한 가치에 대해 정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정리한 내용과 다른 학생들이 정리한 내용을 비교해 본다. 	PPT
	차시 예고 · 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시간에 수업할 내용에 대해 차시 예고를 하고 수업을 정리한다. - 4차시 동안 수업을 바탕으로 「관동별곡」과 가치에 대한 감상문을 과제로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시간에 수업할 내용에 대해 차시 예고를 하고 수업을 정리한다. - 지금까지의 활동을 정리해 감상문을 구상해 본다. 	PPT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하고 주변 환경 정리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하고 주변 환경을 정돈한다. 	

가치 발견하기 단계에서는 「關東別曲」을 감상하여 조선시대 사대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작품의 갈등과 그 속에서 표현된 감정을 통해 파악한다. 층과 같이 작품의 주제 면에서 명확한 가치뿐만 아니라 작품의 부분에서 나타나는

가치들도 파악할 수 있도록 교사가 다양한 가치 예시를 들어주는 것이 좋다.

가치 평가하기 단계에서는 우선 이 가치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정당한지 학습자 자신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이때 판단에 고려된 사항과 작품 창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비교하고, 이를 고려하여 작품에 반영된 가치가 당대의 관점에서 정당한지를 재평가한다.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모두 학습과 토의 교수·학습 모형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가 높을 것이다. 학생들은 스스로의 사고와 또래 학습자와의 논의를 통해서 경험을 통한 가치의 선택에 대한 방법과 이유를 교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가치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발견된 가치를 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작품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다시 확인한다. 이때 그동안 탐구를 통해 파악한 가치로 인해 작품에 대한 감상이 달라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가치 확장하기 단계에서는 탐구한 가치를 자신의 삶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關東別曲」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위의 활동을 통해 현대적 관점의 가치 판단을 적용해 보았다고 해도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현대 배경의 작품이나 대중매체 작품을 활용하여 사고가 이어지도록 지도한다. 한 편으로 교사는 다른 송강가사를 예시로 제시하여 작품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관에 대한 사고를 확장하도록 유도한다.

위의 가치 탐구 학습을 통한 교수·학습 과정안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연구된 매체 활용이나 타 과목 연계를 통한 松江歌辭의 지도 방법을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안은 작품의 내용 이해보다는 감상자의 간접 경험으로 자기 이해의 경험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松江歌辭의 특질인 산수문학적 성격과 교훈성을 함께 이해하고, 작품을 더욱 깊이 있게 학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古典文學의 문학 작품으로써의 효용을 재확인함으로써 학습의 흥미와 함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松江 鄭澈의 가사는 창작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승되며 폭넓게 향유되었고, 그 문학적 우수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아 왔다. 국어교육에서도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현행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까지 松江의 대표적인 가사 작품인 「星山別曲」, 「關東別曲」, 「思美人曲」, 「續美人曲」은 꾸준히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古典文學은 오랜 세월 이어온 한국인의 삶을 들여 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우리는 이전의 국어 문화를 통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국어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국어교육을 한다.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古典文學 교육의 목표는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문화 계승이라고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가 古典文學 교수·학습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학습자들에게 古典文學이 문학 작품이 아닌 암기해야 하는 지식으로 인식되어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古典文學의 문학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松江歌辭의 산수문학적 성격과 교훈성을 고찰하여 이를 松江歌辭 교수·학습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우선 오늘날 문학교육에서 松江歌辭의 위상을 살펴보고, 松江 작품만의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분석해 보았다. 다른 사대부 가사와 차별화된 松江歌辭의 산수문학적 성격을 작품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松江歌辭에서 오늘날 학습자들이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훈적 가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松江歌辭의 산수문학적 성격과 교훈성을 교수·학습에서 실제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가치 탐구 학습 이론을 활용한 교수·학습의 실제와 과정안을 제안해 보았다.

이상의 고찰에 따른 결론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古典文學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가치 중에서 불변의 가치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 준다. 松江歌辭는 뛰어난 문학적 성과 교훈성을 지닌 고전으로서

가치를 확립하는 학습자에게 알맞은 교재이다. 松江歌辭의 작품 안에 드러나는 가치는 다른 가사 문학 작품보다 그 다양성이 풍부하다. 그래서 오늘날 古典文學 교육에서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松江歌辭의 이러한 문학적 특질은 장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작품 이해도를 높이고, 松江歌辭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선 작품에 반영된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松江歌辭의 문학적 특수성은 松江歌辭의 산수문학적 성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활발한 정치 활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山水隱居를 지향하는 山水觀이 작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松江은 일반적인 山水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강한 현실 감각으로 인하여 다른 조선시대 사대부 가사와는 비교되는 독특한 산수문학적 성격을 보인다. 山水에 안주할 수 없도록 만든 현실 정치의 진퇴는 松江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셋째, 松江歌辭의 산수문학적 성격은 크게 思惟와 風流의 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星山別曲」에서 山水는 이념과 현실 간의 갈등이 내면적으로 발생하는 思惟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松江은 星山の 사계를 낭만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隱居에 대한 선망이 내면 갈등으로 바뀌고,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끝남으로써 星山은 歸去來處가 되지 못한다. 「關東別曲」은 관동 지방을 다스리는 목민관으로서와 山水를 遊覽하는 유학자로서 느끼는 風流를 노래한 작품이다. 山水에 심취하여 자연과 합일하는 낭만적 정취를 유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遊覽은 山水에 隱居하여 大自然의 理致를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 景物 고유의 특성만을 따르고자 한다. 松江에게 山水는 곧 歸去來의 공간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고 떠나는 風流의 공간인 것이다. 그리하여 한정된 시간 속에서 山水를 누리는 것은 단지 일탈의 행동으로, 松江에게 山水는 문학적 상상의 공간이 된다. 松江은 山水에서 隱居하는 것이 이상적인 유학자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현실 정치를 걱정하고, 그리워했다. 이러한 이중성 때문에 松江歌辭는 山水隱居를 다른 작품들과 다른 독특한 산수문학적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다.

넷째, 松江은 현실 정치의 진퇴 속에서 풍파를 겪으며 느낀 심사가 歌辭 작품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화

자는 작품의 극적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작가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에 대해 부각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思美人曲」과 「續美人曲」은 임금과 정치를 논하는 한양과 자신이 隱居하는 昌平을 천상과 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思美人曲」에는 사계절, 「續美人曲」에는 ‘낮, 밤’의 순환처럼 자신의 믿음도 순리적임을 강조한다. 松江은 공간과 시간의 이원적 순환 구성을 통해 戀君之情과 변치 않으리라는 의지를 보인다. 망백과 대화의 극 양식 구조로 작품을 전개함으로써 내적 갈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출한다. 하지만 갈등이 전개되면서도 결과적으로 一片丹心을 노래하여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한 교훈을 제시한다.

다섯째, 松江歌辭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대응 방식을 그리고 있지만,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아름다운 언어로 형상화한다. 그러므로 松江만의 산수문학적 성격과 일반적인 교훈성이 작품에 공존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松江歌辭의 개별적이면서 보편적인 특질은 감상자에게 타자에 대한 이해와 자신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히는 간접 경험을 제공한다. 즉, 松江歌辭는 학습자가 시대적 가치의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는 심미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뛰어난 문학 작품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고찰을 바탕으로 심미적 체험을 위한 교수·학습 방향을 제안하였다. 지도의 실재를 고려하여 교수·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 탐구 학습 모형을 고전시가 교육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정리하고, 단계별로 활용 가능한 학습 활동을 고안하였다. 이를 실제 교수·학습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등학교 <국어Ⅱ> 교과서에 수록된 「關東別曲」을 예시로 들어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위의 지도 방향을 바탕으로 松江歌辭를 지도한다면, 문학적 특질을 학습하는 동시에 학습자가 자기 이해의 문학적 경험을 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높이고 더욱 심도 있는 지도가 가능할 것이다. 古典文學의 접근 방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선호도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가치관이 확립되는 청소년 시기의 학습자들이 다양한 가치를 접하고 사고력을 키워서 자신만의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자료

鄭澈, 『松江全集』,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58.

____, 박성의 주해, 『松江歌辭』, 정음사, 1984.

____, 『(國譯)松江集』, 송강유적보존회, 1988.

윤여탁 외, 『고등학교 국어 I』, (주)미래엔, 2016.

김중신 외, 『고등학교 국어 II』, (주)교학사, 2016.

박영목 외, 『고등학교 국어 II』, (주)천재교육, 2016.

박재현 외, 『고등학교 국어 II』, (주)좋은책신사고, 2016.

신동훈 외, 『고등학교 국어 II』, (주)두산동아, 2016.

이삼형 외, 『고등학교 국어 II』, (주)지학사, 2016.

한철우 외, 『고등학교 국어 II』, (주)비상교과서, 2016.

권영민 외, 『고등학교 문학』, (주)지학사, 2016.

김대용 외, 『고등학교 문학』, (주)상문연구사, 2016.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 (주)천재교육, 2016.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 (주)두산동아, 2016.

박종호 외, 『고등학교 문학』, (주)창비, 2016.

우한용 외, 『고등학교 문학』, (주)비상교과서, 2016.

정재찬 외, 『고등학교 문학』, (주)천재교육, 2016.

조정래 외, 『고등학교 문학』, (주)해냄에듀, 2016.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주)비상교과서, 2016.

정민 외, 『고등학교 고전』, (주)해냄에듀, 2016.

교육과학기술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5],

교육과학기술부, 2012.

2. 단행본

- 고정희, 『고전시가와 문체의 시학 - 윤선도와 정철의 경우』, 도서출판 월인, 2004.
- 김진희, 『송강가사의 수용과 맥락』, 새문사, 2016.
- 남궁달화, 『가치탐구 교육론』, 철학과현실사, 1998.
- 정철 외, 김하명 역, 『강호에 병이 깊어 죽림에 누웠더니』, 보리, 2005.
- 류수열, 『고전시가 교육의 구도』, 역락, 2008.
- 박성익, 『松江 蘆溪 孤山의 詩歌文學』, 현암사, 1972.
- 박영주, 『정철평전』, 중앙M&B, 1999.
- 박영주 외, 『송강문학 연구 현황과 전망』, 고요아침, 2014.
- 박춘우, 『한국 이별시가의 전통』, 역락, 2004.
- 반교어문학회, 『조선조 시가의 존재양상과 미의식』, 보고사, 1999.
- 孫五圭, 『山水文學研究』, 제주대학교출판부, 2000.
- _____, 『산수미학탐구』, 제주대학교출판부, 2006.
- 염은열, 『고전문학의 교육적 발견』, 도서출판 역락, 2007.
- 이병기, 『가람文選』, 신구문화사, 1971.
- 이승남, 『사대부가사의 갈등표출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3.
- 정기철, 『인성교육과 국어교육』, 도서출판 역락, 2001.
- 정대림, 『한국 고전문학 비평의 이해』, 태학사, 1991.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83.
- 趙潤濟, 『國文學史概說』, 을유문화사, 1967.
- 최규수, 『송강 정철 시가의 수용사적 탐색』, 월인, 2004.
- 최미숙 외,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2016.
- 최상은, 『조선 사대부가사의 미의식과 문학성』, 보고사, 2004.
- 최지현 외,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역락, 2007.
-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77.

- _____, 『고전시가의 미학』, 월인, 2003.
- 편집부,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白影鄭炳昱先生10週忌追慕論文集刊行委員會, 집문당, 1992.
- 한창훈, 『고전문학과 교육의 다각적 해석』, 도서출판 역락, 2009.
- _____, 『시가와 시가교육의 탐구』, 도서출판 역락, 2009.

3. 논문

<학위 논문>

- 구선우, 「松江歌辭의 傳承과 享有에 관한 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김진옥, 「松江鄭澈詩文學研究」,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김진희, 「송강가사의 수용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우경란, 「가치 탐구 학습을 통한 고전 소설 교육방안 연구- <홍길동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윤성원, 「송강가사의 정전화 양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일반 논문>

- 김도남, 「문학 독서에서의 가치 교육 방법」, 『독서연구』 제12호, 한국독서학회, 2004.
- 김은희, 「가사문학의 창의적 가치」, 『한국시가문화연구』 제37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6.
- 김진옥, 「鄭澈 文學에 드러난 自然觀 研究」, 『한국시가문화연구』 제13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04.
- 김진희, 「송강가사의 시간성과 극적 구조」, 『고전문학연구』 제46권, 한국고전문학회, 2014.
- _____, 「송강가사 교육과 연구의 동향 및 전망」, 『국어교육연구』 제59집, 국어교육학회, 2015.

- 박경남, 「「思美人曲」의 향유 맥락과 중층구조」, 『奎章閣』 第24輯,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1.
- 박연호, 「고전문학의 교육 목적과 가사문학 교육 방안」, 『韓國詩歌研究』 제38호, 한국시가학회, 2015.
- 박영주, 「송강가사의 감성 교육적 가치」, 『한국시가문화연구』 제37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6.
- 孫五圭, 「고전시가의 흐름과 지도」, 『백록어문』 제14호, 백록어문학회, 1997.
- _____, 「歌辭의 문학교과지도 視點 - 賞春曲, 思美人曲, 愚夫歌를 중심으로-」, 『백록어문』 제15호, 백록어문학회, 1999.
- _____,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실린 조선조시가의 문학사상지도」, 『인문학연구』 제4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 조동일, 「가사의 장르규정」, 『어문학』 제22집, 한국어문학회, 1969.

<Abstract>

Teaching Songgang Gasa's Sansu-literary characteristicss and Didactic value

Pak, So-yong

Major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Leading professor Sohn, O-Gyu

Gasa written by Jeong Cheol, Songgang in pen-name, is highly recognized literarily and the classical literature has been included in Korean language curriculum at schools. This study looks into literary characteristics of Sansu(landscape, nature) and didactic value of Jeong Cheol's Gasa literature through esthetic experience of learners and teachers at high schools to utilize his works for teaching.

Songgang Gasa has outstanding educational merit to learn about particularity and universality in literature even today. To appreciate and understand Songgang Gasa, students should understand dominating value in the literature first.

Songgang Gasa reflects values of scholars during the Joseon Dynasty: living in and harmonizing with Sansu. On the other hand, the literature also has strong sense of reality, which creates peculiar literary characteristics of Sansu. In Seongsanbyeolgok, Sansu is a place to think and reason and discloses discrepancy between reality and ideology. In Gwandongbyeolgok, the writer enjoys Sansu while feeling duality traveling Sansu as a Confucian

scholar and a governor of a province. Following universal values of the time, Songgang Gasa says that Sansu is extended reality, which makes Songgang Gasa unique.

Jeong Cheol stresses everlasting fidelity for his king by dualistic rotating structures of space and time and effectively expresses inner conflict by dramatic structures in Samiingok and Sokmiingok. The writer suggests lessons about permanent values as he sings about everlasting sincerity while conflicts develop. Sticking to his faith even in extreme situations inspires us living our modern times. Therefore, literary characteristics of Sansu and didactic value of Songgang Gasa offer indirect experience of understanding others and broadening thought about oneself.

Songgang Gasa provides readers with opportunities to understand diversity and difference of value of the age, which is esthetic experience. This study suggest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ocusing on experience of diverse values based on literary characteristics of Songgang Gasa. The study proposes phased learning activities that adopt value inquiry learning methods for Korean classical poetry. For application of the activities to teaching and learning, lesson plans for Gwandongbyeolgok is offered as an example.

If teachers follow the suggested teaching methods for Songgang Gasa, learners can get literary characteristics of the literature and experience self-understanding literarily. This will encourage learners to know and study more about Songgang Gasa and lead to in-depth teaching. Also, it is expected that Songgang Gasa will help adolescents to build their own positive and healthy values by giving them opportunities to know about diverse values and improve thinking ability.